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37호 (3월 1일~3월 7일)

주석님 노작
현 시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족반역자의 망령, 민족의 이름으로 청소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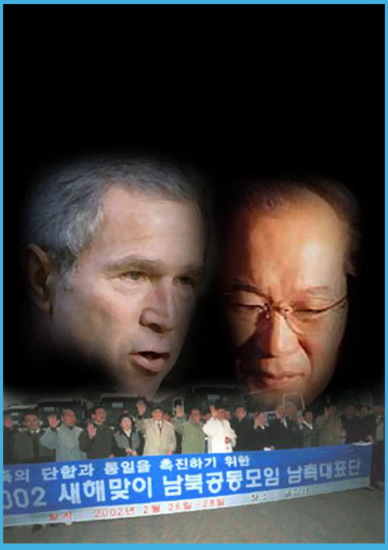
부시와 이회창, 6.15선언 파괴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을 발간하며
≪반부시반미문헌집1≫을 발간하며
연단 - 운동의 대중화를 생각해본다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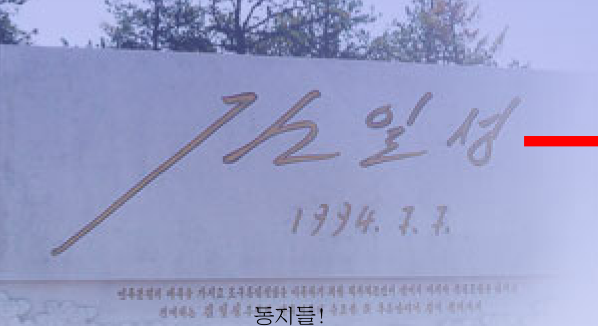
제37호 (3.1~3.7)





현 시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남북조선공산당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 1946년 6월 26일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책임 있는 남북조선의 공산당 책임일군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남북조선에서의 당 건설과 당 활동문제 그리고 북조선에서의 중요산업국유화와 화폐개혁, 정규군대창설 문제 등 현 시기 우리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토의하려고 합니다.

남북조선의 공산당 책임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방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공산당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하고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을 전진시키며 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권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킬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에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지도 1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나 해방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조선의 북과 남에는 소미 양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의 책동으로 인하여 국토와 민족이 양단될 수 있는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불행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부강한 통일 독립국가로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미국사람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대중 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조선에 독립국가를 세워 주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될 것입니다.

소련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한 것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민족해방투쟁을 할 때에는 소련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권을 쥐고 건국사업을 하자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련외무성의 일부 사람들은 북조선에서의 산업국유화문제와 화폐개혁문제, 정규군대조직문제를 비롯하여 현 시기 우리가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이 소련 당과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기의 결심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 시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나라를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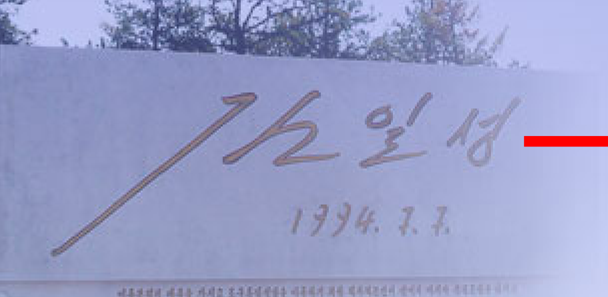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광범한 민주역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단합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광범한 근로대중의 단합을 실현하자면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0월 당 창립대회에서 공산당을 근로대중 속에 뿌리박은 대중적 당으로 건설할 데 대한 조직노선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과 당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동무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전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며 노동계급은 청소합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일제의 악선전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 역량을 급속히 확대 강화할 수 없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할 수 없으며 건국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 수 없습니다.

공산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북조선에 공산당과 함께 근로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신민당이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정



당들이 따로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근로대중을 분열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의 분열을 막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변화된 사회계급관계와 정세도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내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을 실시하는 과정에 사회계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노동계급의 영도적 지위가 일층 확고해지고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텔리의 동맹이 강화되었으며 그들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텔리들은 오직 하나의 대중적 당의 지도하에서만 굳게 뭉쳐 새 조국 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을 건설하는 것은 남조선에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함께 근로정당들인 인민당과 신민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산당을 탄압하고 민주역량을 분열 약화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위조지폐사건≫과 같은 모략까지 꾸며 공산당을 탄압하고 그의 활동을 비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인민당과 신민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한편 ≪좌우합작≫의 모략을 꾸며내어 공산당을 고립시키고 민주역량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정당들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고 미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역량의 분열을 방지하고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내와야 합니다.

남북조선에서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이와 같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대중적 당으로 되면 소자산계급화 된다느니, 당의 지도사상이 달라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중적 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반대하며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중적 당 건설노선을 견지하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내올 수 있는 기초와 조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공산당은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었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영도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공산주의 대열 내에서 분파적 경향들이 적지 않게 없어지고 공산당의 조직체계가 정비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 강령들을 보아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산당의 당면한 투쟁강령과 다른 근로자당들의 강령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현 단계에서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창립하는 사업은 남북조선의 정세가 다르고 투쟁임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각기 따로따로 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창립하며 남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창립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을 창립하는 사업은 공산당과 다른 근로정당들과의 합동을 실현하는 문제인 것만큼 공산당의 의사를 다른 정당들에 강요하려해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당하여 새로 창립되는 당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수자리 같은 것은 인민당이나 신민당에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과거 일제는 조선에서 공장, 광산, 탄광, 발전소, 철도, 체신, 은행 등 조선의 중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해방된 오늘 우리는 응당 일본국가와 일본인,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산업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어있던 산업시설을 국유화하지 않고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후과를 청산할 수 없고 노동자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 수 없으며 민족산업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자기 손에 틀어쥐어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국가를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소련사람들은 소련군대가 대일 작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소유로 되어있던 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을 적산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어 그들은 북조선의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자기 나라로 뜯어 가는 등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전패국이 아니라 일제와 싸워 해방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제의 소유로 되어있던 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은 응당 조선인민이 차지하여야 할 적산입니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 기업소들은 어느 것이나 다 조선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련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중요산업시설들을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중요산업이 조선인민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할 필요가 없지 않은 가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제침략자들이 패망하고 쫓겨갔기 때문에 일제의 소유로 되어있던 중요산업이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중요산업이 우리 인민의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합니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는데서 국유화의 대상과 몰수원칙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일제와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산업시설들을 국유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무상 몰수하는 원칙에서 국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족자본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의 산업시설은 국유화하지 말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민족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민족화폐를 발행하여 자기의 화폐를 가지는 것은 새 조국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민족화폐를 가지는 것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화폐가 없이는 나라의 경제를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조선에서는 소련사람들이 찍어낸 군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표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광범히 통용되다보니 나라의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련사람들이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주인인 우리한테서 달라고 하여 써야 하겠는데 오히려 주인인 우리가 돈 한푼을 쓰자고 해도 그들한테서 달라고 하여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과거 일제가 찍어낸 ≪조선은행권≫도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은행권≫은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주구들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혼란시키고 파괴하는데 이용하고있습니다. 미군정과 그 주구들은 ≪조선은행권≫이 남북조선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망탕 찍어 북조선에 들여보내고 그 지폐로 많은 상품과 양곡을 염가로 사서 남조선으로 빼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조선시장에서 물가가 폭등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완전자주독립국가 건설에 큰 지장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민족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조선은행권≫과 함께 붉은군대의 군표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족화폐, 조선 돈을 발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규무력을 창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규무력을 창건하는 것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3대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규무력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련사람들은 우리가 정규무력을 가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 그들은 소련군대가 북조선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자고 하는가, 군대를 조직하겠다는 것은 북조선에서 소련군대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우리의 민족군대 창설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나라와 민족을 보위할 수 있는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정권을 잡은 우리가 강력한 자기의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없으며 새 조선 건설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련군대가 북조선에 주둔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어차피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건국사업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남조선에 제국주의 침략군대인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제가 괴뢰군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의 정규군대를 창설하는 사업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미제는 지난해 11월에 ≪군정청≫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괴뢰군을 조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괴뢰군의 모체로 될 ≪국방경비대≫와 ≪해방병단≫을 내왔으며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군용도로와 군항 등 군사시설물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파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새 조국건설을 보위할 수 있는 정규무력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정규무력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군사간부를 많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양학원에서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군사간부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양성하자면 군사교육기관을 더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설치하여 보병, 포병, 공병 등 각 병종의 군사간부를 많이 양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국보위임무도 수행하고 앞으로 창건될 정규군의 핵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보안간부훈련소를 내와야 하며 필요한 군종, 병종 부대들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모든 사업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당 건설과 민주개혁, 군대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조국광복회-1

≪세기와 더불어≫ 제4권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새 사단의 탄생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더욱 강화발전된 것으로 하여 우리의 앞길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새 사단의 출현은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며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군사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었으며 카륜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전개해 온 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남호두회의 이후 시기부터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에로 집중되었다. 하나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였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민족대단결의 통일전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바쳐왔고 중국 땅에서 투쟁하는 조건에 맞게 중국의 광범한 반일역량, 공산주의들과의 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 우리가 쌓아올린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은 통일전선운동의 폭넓은 발전을 위하여 값있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과 주체적 역량을 빨리 키워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시도는 1930년대 이전 시기에도 있었다.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주의와 주장을 초월하는 민족의 대동단결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기 이후부터였다. 그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

의 폭정과 수탈이 강화될 수록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던 선각자들은 애국역량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모색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진영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진영 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1927년 2월에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도 부를 만큼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는 컸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반목대립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대중은 환호를 올렸다.

주의주장의 차이로 하여 사이가 벌어졌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운동자들이 때늦게나마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일전선기관을 내온 것은 민중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하나의 큰 경사였다.

우리 나라 민족협동전선의 첫 산아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었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양대세력의 공동전선이 실현됨으로써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 되었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란 뜻에서 신간회하고 한 명칭 자체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의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이상재, 홍명희, 허헌과 같이 민중의 인망이 높은 진보적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고 추진되고 운영된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으며 회원들의 직업별 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였다. 신간회에는 노동자, 농민, 여관업자, 사진업자, 기자, 상업가, 의사, 회사원, 교원, 대서업자, 목축업자, 인쇄업자, 어업자, 운수업자, 직공, 재봉공, 학생, 변호사, 저술가, 은행원, 교역자등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고 한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1931년 5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신간회의 해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공산주의운동자들은 그 해산의 원인을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였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은 신간회가 해산된 근본적인 원인을 상층의 분열과 개량주의적 경향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이 조직의 애국적 성격과 민족사적 의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해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놀음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신간회 상층에 개량주의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여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되며 그 민족사적 의의를 영으로 만들어도 안된다.

신간회가 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반일항쟁역량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열을 꾀하고 개량주의적 상층을 매수한 데 있었다.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신간회를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나갈 만한 중심적인 지도역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해산 원인이었다.

신간회의 와해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은 우리는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 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총력을 항일구국위업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핵심도 키워내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남호두회의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인민전선운동이 대두하여 파시즘과 대결하고 있을 때였다.

독일 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 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 밑에 분리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6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주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7월 14일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의 참가하에 인민전선의 대시위가 진행되게 되었다. 3당 수뇌자들인 모리스 토레즈와 레온 블룸, 달라지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위행진의 선두에 섰다. 1936년 1월에는 3당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쑈 투쟁에 떨쳐나선 진보적 그룹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그해 4~5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 사로내각은 총사직하고 레온 블룸을 수반을 하는 인민전선내각이 탄생하였다. 물론 인민전선정부는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에스파냐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인민전선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노골적인 파쑈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쑈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을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 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노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계열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36년 2월 에스파냐에서의 아싸니아인민전선정부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에스파냐인민전선은 프랑코의 반란과 독일, 이탈리아의 군사적 간섭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하였다.

에스파냐인민전선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추진된 이른바 불간섭정책이었다. 엄정중립과 무기금수를 결정한 부당한 불간섭정책은 결국 반란군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쏘련도 처음에는 불간섭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것이 인민전선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인민전선정부에 비행기, 땅크 등을 보냈다. 에스파냐인민전선이 겪고 있던 곤경은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과 근로자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에서 숱한 지원병들이 에스파냐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에스파냐는 파시즘세력과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간의 국제적 교전무대로 되었는데 그 교전은 작은 규모의 세계전쟁을 연상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던 때를 전후하여 벌어졌던

국제적인 반파쑈운동 형편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이디오피아 애국자들의 영웅적 항전에서도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었다

국제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재빨리 포착하고 각국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을 반전, 반파쑈 투쟁에로 묶어 세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관련한 국제당과 역사적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시즘은 새로운 적이 아니였다. 국제파시즘이 대두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의 대상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 성격이 변화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국제당이 반파쑈인민전선운동 노선을 제기하기 전부터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제기해왔고 그 궤도를 따라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주로 내가 혼자서 광복회 창립을 두고 사색을 무르익혀왔을 뿐이다. 김산호, 최현, 박영순을 비롯한 몇몇 동무들이 이따금씩 필요한 조언을 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대체로 그거야 사령관 동지가 좋을대로 하시지요 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돈화지방에 있는 옥수천 부근의 한 산간부락에서 어떤 나이 많은 서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의논대상이 되어 주었다.

그 부락에 조선사람이 사는 집이 둘이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집에 들었다. 그때 화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느 한 소부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 소부대 동무들은 나를 만나자 괴이한 사람을 달고 왔다고 보고하였다. 화룡이 어느 벽촌에서 만난 사람인데 소부대가 사령부를 찾아온다는 낌새를 알고 **김일성**장군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를 뒤따라왔다는 것이였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사령부로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한 소부대 성원들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네들은 가라, 나는 나대로 갈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상호 남의 일에 간참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는 장바 한두 기장쯤 되는 거리를 두고 그냥 태연하게 소부대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나의 호기심을 끌더니 첫 상봉 좌석에서도 별스럽게 굴었다. 소부대 동무들은 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나를 소개하였으나 괴이한 손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의 나이와 열성을 봐서라도 진짜 **김일성**장군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주인집 장작을 패 주다가 그를 맞아들였는데 나의 차림새가 아마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하다가 아무렴 김장군이 그렇게 젊을 수 없고 장군되는 사람이 머슴처럼 장작을 팰 리도 없으며 막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다고 하였다.

북만의 관지 부근에서 야숙할 때 불무지 보초를 선 신입 전령병이 조는 바람에 내 바지를 태운 적이 있었다. 헌 솜옷이었던데다 기워입기까지 하였으니 사실 나의 옷주제가 허술하게 보였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가 괴짜였다. 그는 호지명의 수염같은 턱수염을 달고 있었다. 실제는 마흔네댓 살 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으나 나이보다는 걸늙어서 쉬나문 살이나 돼보였다.

그는 항간에서 떠도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도 소문이 났길래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고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내가 소문난 잔치 먹을 알이 없다고 대꾸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장군이 입은 옷만 봐도 노고가 짐작된다고 하였다.

심한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는 대뜸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첫 소개부터가 아주 괴이하고 호탕하였다.

≪저는 아무것도 이룩해 놓은 것 없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우왕좌왕하기만 해온 기회주의자올시다.≫

나는 한평생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초면에 자기를 기회주의자라고 서슴없이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무한히 양심적인 사람만이 무한히 솔직한 법이다. 솔직성은 흰 눈처럼 깨끗한 양심의 반사이며 감춰내지 못하는 야심의 빛이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솔직한 그 몇마디의 말로 대뜸 나를 반하게 만들었다.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 꾸밈없는 이야기에서 나는 도리어 그의 인격적 높이를 보았다.

우리는 미혼진으로 빨리 나가야 했던 것만큼 그 마을에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 정도로 만나 주고 헤어질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길을 떠나려 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대신 우리를 따라나섰다. 김 장군을 만나고 보니 인차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몇시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따라가며 이야기나 나누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웬일인지 나도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와 함께 줄창 이야기를 하다나니 행군에서 지루한 줄을 몰랐다. 이야기에 얼마나 열중했던지 나는 대원들이 쉬고 싶어할 때 쉬우지 못하고 행군을 계속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김산호가 우리 곁에 다가와 좀 쉬다가 가야 하지 않느냐고 귀띔해 주곤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당 역사에 조국광복회 발기인으로 기록된 ≪대통영감≫이동백이었다. ≪대통영감≫이란 이동백의 별명이었다.

함경남도 단천이 이조 말기의 참령이며 유명한 의병지도자이고 공산주의운동자인 이동휘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이동백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한학 공부를 많이 하며 자라난 이동백의 성장에서 이동휘가 준 영향이 대단히 컸다는 것과 그 영향 밑에서 ≪대통 영감≫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행군 도상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 지식이었다. 그가 소속된 투쟁단체는 군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군비단의 소재지는 장백지방이다.

군비단과 강진건의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들 사이의 담화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강진건에 대해서는 그도 나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이동백은 8도구와 임강 쪽에도 자주 가곤 했고 그때마다 강진건과 깊은 연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군비단에서의 그의 직무는 통신사무국장이었다.

그러나 경신년 대≪토벌≫바람이 장백 땅에 미치게 되자 그렇게 으리으리하던 군비단도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 실망한 이동백은 이동휘를 찾아 러시아로 들어갔다.

그는 치따에서 이동휘를 만났고 이어 고려공산당에도 들어갔다. 어젯날의 독립운동자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운동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전환과 함께 그는 곧 파쟁 속에 휘말려들어 갔다.

이동백에게서 고려공산당 소리가 나오자 나는 오가자 시절에 고려공산당 당증이라는 것을 구경하던 생각이 나서 변대우를 아는가고 물었다. 그는 자기와 변대우와는 일찍부터 막역지우였다고 하였다.

내가 오가자의 변대우한테서 고려공산당증을 구경하던 소리를 하자 이동백은 감자도장을 찍은 대표증도 구경했는가고 물었다. 그 소리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자 그는 감자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22년 11월 러시아원동의 엘프뉴진스크라는 곳에서는 상

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합동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대회에서 다수파가 되어야만 합당 후 당의 영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간주한 양파는 자파의 대표 수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이르쿠츠크파는 감자도장까지 새겨 가지고 숱한 가짜 대표증을 만들어 대회에 엉터리 대표들을 참석시켰다. 상해파도 그만 못지않은 협잡행위를 하였다. 결국 대회는 옥신각신 끝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환멸을 느낀 변대우는 민족주의운동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품고 임강 쪽에 가버렸고 이동백은 이동휘의 파견을 받아 훈춘 쪽에 나왔다.

≪대통 영감≫은 훈춘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1925년 봄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가명을 가지고 조선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듬해의 6·10만세시위운동에도 참가하였다.

파벌들의 집결처였던 서울 체류는 이동백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새로운 파쟁의 회오리바람 속에 말려들게 하였다. 처음에는 화요파에 끌려들었다가 다음에는 엠엘파에 뛰어드는 식으로 일인 양역, 일인 삼역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당의 영도권을 장악하려는 각파의 추악한 암투는 중앙위원이라는 사람까지 자루 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곤봉으로 때리고 목침으로 머리를 까는 따위의 추태들을 산생시켰는가 하면 반대파를 경찰에 밀고해서 잡아가두게 하는 통탄하여 마지않는 희비극도 연출하였다. 서울에 그냥 있다가는 언제 어느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쇠고랑을 차거나 곤봉에 머리가 깨질지 몰랐다. 이동백은 다시 북간도로 들어왔다.

돛도 키도 노도 다 없는 난파선마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떠미는 대로 우왕좌왕해왔던 이동백은 파쟁의 세계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룡정에 단단히 눌러앉았다. 그는 용정에서 신문기자 노릇도 하면서 독립군운동도 공산당운동도 다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간도 대지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30년대의 항일운동은 이동백을 또다시 풍랑 속에 떠밀어 넣었다. 화요파계열의 그 무슨 어정쩡한 무리에 끌려든 이동백은 화룡현 3구의 서기로 있다가 간도대≪토벌≫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 영영 세상을 등지고 살리라는 결심을 품고 솔가하여 화룡의 깊은 벽지에 들어갔다. 거기서 서당 훈장질을 하며 지난 몇해 동안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구 뭐겠습니까? 서상파 하날 내놓구는 파벌이란 파벌에는 다 끼어본 알짜 기회주의자입지요.≫

이동백은 그 파란 많은 과거사에 종지부라도 찍듯이 대통에 써레기담배를 재워 넣었다. 그는 담배를 지독하게 피웠다. 때로는 마상행군길에서도 대통을 꺼내 물었다가 애어린 전령병에의 핀잔을 받곤 하였다. 그럴 때면 노염을 탈 대신 ≪이 정신 봐라. 행군 때 담배를 피우면 멀리 있던 개들까지 불러온다던 걸 또 잊었군.≫하고 변명삼아 웅얼거리며 대통을 덧저고리 주머니에 집어넣곤 하였다. 그는 담배를 절대로 종이에 말아 피우는 법이 없었다. 꼭 대통으로만 피웠다. ≪대통 영감≫이란 별명도 그런 연유로 해서 생긴 것이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을 기회주의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선사회의 참다운 진로를 탐색하느라고 이리 기웃해 보고 저리 기웃해 본 데 지나지 않지요. 진리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당파에 관여하게 된 것은 결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그 말에 이동백은 적이 놀랐다.

≪제가 실지로 여러 당파에 휘말려들었는데도 기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은둔생활을 결심하고 화룡의 산간벽지에 몇해 동안 들어박혀 있었다는 선생이 그 결심을 어기고 젊지도 않은 몸으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주의자의 본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속심을 그렇게 속속들이 꿰뚫어 들여다보시니 제 기꺼이 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또 집을 떠나온 건 수십 년 동안 못 찾은 ≪보물≫을 죽기전에 기어이 찾아 쥐자는 짖궂은 욕망 때문입지요.≫

≪의로운 뜻을 품고 진리를 탐색하는 선생과 같은 분을 보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한때는 선생같은 진리의 탐색자들과 의로운 운동객들이 우리 나라에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으면 변절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보니 지금은 정말 희소합니다. 선생이 살아 계신 것만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대통 영감≫과의 흥미진진한 담화는 미혼진에 가 닿았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 나는 이동백에게 정이 들었다.

이동백도 또한 우리에게 정을 붙였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런 이별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적과의 접전이 계속되는 멀고 위험한 행군길로 계속 동행시킬 수 없었다.

미혼진을 떠나기에 앞서 나는 이동백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삼 권고하였다. 그는 대답 대신 부시럭거리며 덧저고리 안자락을 들추더니 네 겹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펴서 내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국한문을 섞어서 쓴 입대청원서였다.

해가 서쪽에서 불쑥 떠올랐다 해도 그 순간처럼 우리를 놀래우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그 연세에 어떻게 우리들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오.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의 휘하에는 나보다 한 배반이나 더 나이 먹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로는 부결할 조건이 못됩니다.≫

≪화룡 오지에서 눈이 새까매 기다릴 부인과 자식들은 누가 돌봐 줍니까?≫

≪정배도 가려다 못 가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국대업에 한몸을 다 바치고 싶어서 떠난 걸음인데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다니요. 장군은 병중의 모친과 어린 형제분들을 돌봐 줄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나라 찾을 싸움길을 떠난 게 아니었지요?≫

무슨 말로도 ≪대통 영감≫을 설복해 낼 수 없었다. 내가 지고 말았다. 그의 입대를 기념하여 나는 두 해 동안 애용해 오던 권총을 그에게 주었다.

이동백은 입대가 결정되자 자기가 어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곁에 남기로 결심하였는가를 신바람이 나서 역설하였다.

≪나를 장군 곁에 붙잡아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장군의 그 고명한 경륜이구, 둘째는 장군의 기운 바지와 미혼진 열병환자들의 울음이었지요.… 격리상태의 열병환자들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찾아가 돌봐 주는 걸 보고 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고 아랫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다하는 거물들을 만나봤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 조선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맡아 안은 진짜배기 주인, 진짜배기 지도자를 찾은 것, 이게 나를 여기 남게 한 근본 이유입니다. 탁상공론을 안하고 공리공담을 안하는 것, 장군은 이 우점만으로도 나와 같은 시골서생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을 붙잡은 세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것은 장군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방식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입니다.≫

내다보는 세기

새역사연구회 정진철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7일～28일



나는 지난해 새 세기의 첫 태양절을 맞으며 흘러간 20세기를 뒤돌아보는 글을 발표한바 있다.

지나간 20세기는 민족사와 인류사의 견지에서 보나 시대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으로 보나 **김일성**주석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뜻깊은 세기였다. 주체의 횃불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신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신 희세의 위인이셨다. 그래서 역사는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부르며 높이 칭송했다.

이제 21세기는 어떤 세기로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 세기의 밝은 앞날을 기원해마지 않는다. 나는 21세기는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의 존함으로 빛날 세기, **김정일**세기로 불리워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

21세기를 향도할 사상도 **김정일**사상이고 이 세계의 발전을 추동할 정치방식도 **김정일**정치방식이며 새 세기의 인류가 살게 될 세상도 **김정일**자주세상이다. 새 세기의 첫해인 지난해에 펼쳐진 이북의 경이적인 현실이 그것을 웅변해준다. 그 시작에 그 매듭이라고 21세기의 첫해부터 행성에 **김정일**열풍을 몰아오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과 거대한 공적은 새 세기의 휘황한 전도를 확실하게 내다보게 한다.

나는 2월의 대경사절을 계기로 독자들과 약속한대로 21세기를 내다보며 대망의 **김정일**세기를 노래하고저 한다.

새 세기의 창조자

위인은 시대를 낳고 역사를 규명한다. 세기적 위인이 있어야 세기의 창창한 앞날이 있다. 그래서 인류는 절세의 위인의 영도를 갈구한다.

21세기는 자주위업이 온 행성에 개화만발하는 세기이다. 인류는 장구한 세월 압제와 수탈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다. 인류의 이 역사적 숙원은 지난 20세기에 이르러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에 의해 비로소 성취의 빛을 뿌리게 되었다.

주석에 의해 개척된 자주위업은 21세기에 반드시 승리의 종착역에 가닿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의 지향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이 인류사적 대업은 오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들에 의해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일극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지배세력, 패권세력의 강권과 전횡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광기를 띠고 있다. 수수백년 차지해온 기득권을 지탱하려는 지배세력의 이 최후 광란을 짓부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일으켜 세우자면 **김일성**주석과 같으신 불세출의 영웅, 출중한 위인의 영도가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첨단과학기술의 세기이고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바야흐로 지구촌에는 기계제산업의 시대가 물러가고 정보산업의 개화기가 펼쳐지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이 선진국, 강대국건설의 추진력으로 될 새 세기는 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지도자를 요구한다. 실로 이전 세기들과는 대비도할수 없는 거창하고 심오한 이 대변혁의 세기를 이끌 영도자는 특출한 지도적 자질과 초인적 능력을 지닌 영걸이어야 한다.

역사와 시대발전에 이러한 요구를 체현하시고 세기의 조종관을 잡으신 영도자는 다름아닌 **김정일**장군이시다. 장군은 사상이론에서 출중하시고 정치에서 노숙하시며 군사에서 비범하시고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에서 박식하시고 외교에서 원숙하시며 인간적으로 다정다감하신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영도자, 인류가 처음 맞이한 전설적인 위인이시다.

위인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위인의 자질에서 핵은 탁월한 사상으로 시대를 밝히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걸출한 사상이론가로써의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계신다. 장군은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인류사상 최고봉의 이념으로 자주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신다.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이념인 주체사상은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는 평등세상, 민족위에 민족없고 나라아래 나라없는 자주세계, 인류가 세기를 이어오며 갈망한 풍요와 복락의 꿈이 실현되는 이상사회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21세기를 이끌 인류의 향도사상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밖에 없다. 주체사상은 곧 **김정일**사상이다. 세인들은 **김정일**장군께서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김정일**사상을 새 세기를 밝히는 불멸의 횃불로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열풍은 오늘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류구원의 참 보검이다. **김정일**장군의 초상사진을 성상으로 모시고 주체의 진리를 전파하는 성 파울로 살자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신세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지금 행성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대륙별 지역연구소들, 무려 1천여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되어 활약하고 있다. 세계반동의 아성인 아메리카합중국에도 미국아시아주체연대성 및 사회과학협회가 결성됐고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나라들에서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맹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체사상신봉이 범죄시되고 있는



이남에서도 주체사상연구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다.

지난해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주체사상대토론회가 공개리에 열렸었다. **김정일**장군의 저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가 청년학생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필독서로 되고 **김정일**장군의 활동약력이 TV와 인터넷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주체사상탑모형을 세워놓고 그 진리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한때 수개사단의 주사파세력이 사회각층에 뿌리박았다고 아우성친바 있다. 오늘 그 세력은 백배로 자라났다. 각계 민중은 주체의 궤도따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은 21세기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시다.

위인의 높이는 실력의 높이이다. 위인의 자질은 비범한 영도실력에서 검증된다. **김정일**장군은 무비의 영도력을 지니신 현시대의 정치거장으로 공인되고 있다. 장군께서 헤쳐오신 수십성상의 정치역정은 창조와 변혁, 승리와 영광의 전성기로 수놓아져있다. 이 행성에 장군처럼 오랜 기간 당, 정, 군 전반을 이끄시며 그토록 풍부한 영도경험을 쌓으시고 그처럼 완벽한 영도능력을 발휘한 지도자는 없는 줄로 안다.

장군의 천재적 영도력은 20세기 마지막 연대에 더욱 높이 과시됐다. 오천년내에 민족대국상, 연이어 덮쳐든 자연재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공세, 천겹만겹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시련을 이북이 이겨낼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그런한때 **김정일**장군께서 이 미증유의 난국을 단신으로 타개하시며 생사기로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셨다.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연합뉴스의 정모기자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북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군의 영도력은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경탄하지 않았던가.

장군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오늘 이북은 인구는 많지 않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대국으로, 영토는 크지 않아도 초대국도 범접못하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 위세 떨치고 있다. 정녕 김 정 일 이 세글자의 존함은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불패, 불굴, 불멸의 기치로, 자주, 존엄, 승리의 상징으로, 기적, 영광, 행복의 표대로 빛나고 있다. 반대로 제국주의악마들에게는 삼백만기, 삼천만기의 핵병기보다 더 무서운 강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그래서 동서방을 막론하고 장군을 희세의 정치원로, 영도의 대거장으로 우러러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녕 **김정일**장군은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승리와 번영에로 이끄시는 새 세기 향도의 태양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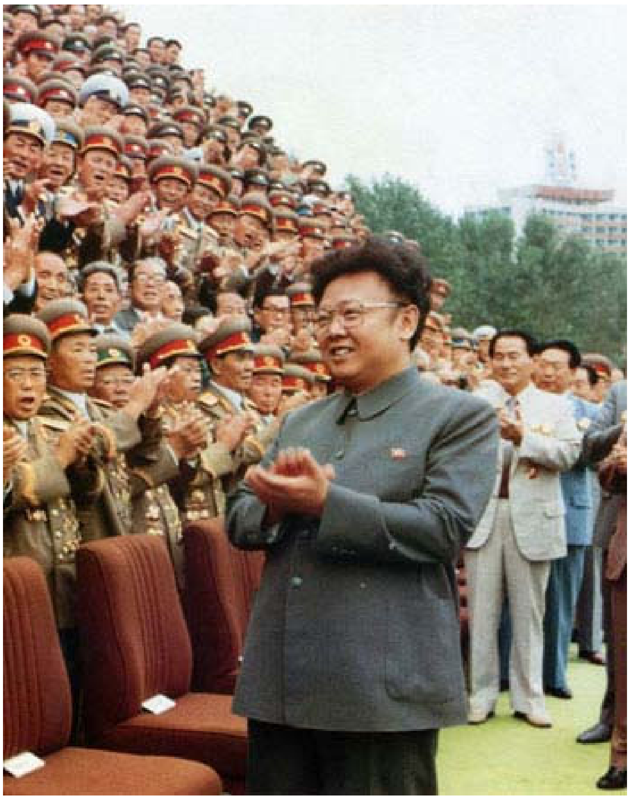
위인의 높이는 덕망의 높이이다. 위인의 품격은 숭고한 덕망에서 빛을 뿌린다. **김정일**장군은 뜨거운 인간애와 광폭의 도량, 고결한 의리심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덕의 화신이시다. 언제나 인간을 존중하고 민중을 사랑하시며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장군이시다. 장군께서 베푸시는 시책은 철두철미 인간사랑, 민중사랑, 겨레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민위천은 장군의 지론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은 장군의 좌우명이다. 장군께서 지금껏 민중행열차로 민중을 찾으신 노정은 105만8260여리이고 그 단위는 1만1326개라고 한다. 장군이시야말로 항시 민중속에 계시며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민중의 어버이이시다.

정치가는 그릇이 커야한다고 했다. 장군은 우주와 같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정치가이시다. 지난날의 허물도 덮어두시고 이남의 전직 대통령들을 다 평양에 초청해주신 장군, 어제의 실언도 불문에 부치고 반공반북의 일선에 섰던 언론사 사장들도 만나셔 환대해주신 장군, 민족의 향취어린 송이버섯 선물을 이남의 각계 인사들에게 똑같이 보내주신 장군의 그 무변광대한 도량에 만사람이 머리숙였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어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영전에 친히 조전과 화환, 조문단까지 보내주신 장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이남의 김연자가수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장군의 후더운 인정미에 매혹되지 않은 이 어디 있으랴. 러시아방문의 길에서 지난날 우정을 맺었던 인사들을 만나시어 따뜻한 은정을 베푸신 장군, 외국수반들의 발길이 끊어진 레닌묘를 방문해 경의를 표하신 장군의 숭고한 의리심은 행성을 숙연케했다.

진정 **김정일**장군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만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인덕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절세의 위인에게는 뭇사람들의 숭앙이 따른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장군의 위인상을 찬양하여 일컬어온 존칭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125가지에 달했다. 동서고금에 한 위인을 경모해 그같은 많은 존칭어를 쓴 예는 없는 줄 안다. 하지만 장군의 천출위인상에 비하면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은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장군을 만나뵈옵고 기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세계정치에 정통하고 국제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어떤 주제든지 논의할수 있는 완전한 현대의 정치가 이시라고 했다. 클린턴 전 미대통령은 장군을 최고영도자 로 호칭하며 찾아가 뵈올 의사를 표명했고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장군을 뵈옵고 순간에 매혹되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대단히 정중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지역문제와 국제문제에 식견이 풍부한 분 이시라고 하지 않았던가. 서방의 정상으로써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유럽연합 전 의장인 페르손스웨덴총리는 장군을 식견있고 준비된 지도자, 허물없고 소탈하신 분 이시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정통하고 완벽한 자질을 지니신 완전무결한 지도자 , 지금까지 만나본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이시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장군의 러시아방문때 세계 150여개국의 수많은 통신 방송이 장군의 5만여리 장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여일간 6대주에 연 300여억 인류가 장군께서 걸으시는 자욱자욱을 따르며 경탄의 환호를 올렸다. 세계정치사에 그 어느 갈피에도 한나라정상의 외국방문이 그토록 엄청난 파문과 열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던가. 그것은 그대로 장군을 우러르는 세계의 열렬한 흠모심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였다.

올해 **김정일**장군의 탄생절에 즈음해 세계각국에서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펼치고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 국제기구대표들이 장군의 고향집앞에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성대히 거행했었다. 이것은 장군을 새 세기의 태양으로 모신 지구촌의 기쁨과 환희의 분출이며 장군을 따라 21세기를 영광차게 열어나갈 인류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다. 사상이론에서도 제일이시고 영도예술에서도 최고이시며 인덕풍모에서도 으뜸이신 **김정일**장군을 모신 것은 진정 21세기가 받아안은 영광중의 영광, 행운중의 행운이다. **김정일**장군을 태양으로 모셔 21세기는 첫 시작부터 영광의 세기로 빛을 뿌리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새 세기의 정치방식

정치방식문제는 세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이다. 인류는 새 세기에 자기의 존엄이 지켜지고 번영이 이룩되기를 바란다. 인류의 이 소망성취를 담보할 정치방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역사는 이미 수많은 정치방식을 체험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인 정치방식으로 되지 못했다.

지난 세기에 선망받던 소비에트식 정치방식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복귀라는 비정상적인 악결과를 초래해 20세기 정치사에 가슴 쓰린 상처를 남겼다. 오랫동안 자본사회를 지배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방식은 온갖 불평등과 사회악, 침체와 후퇴를 빚어내는 반역사적 정치방식으로 민중의 배척을 받고 있다.

인류가 갈망하는 정치방식, 21세기의 앞길을 개척할 이상적인 정치방식은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밖에 없다. 선군정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고 고전에도 없다. 그것을 실시해본 정치가도, 경험해본 나라도 없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장군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완전히 독특하고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가장 조직화되고 정예화된 군대를 본보기로, 기둥으로 삼고 나라도 지키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하는 애국애족애민의 참정치이다.

선군정치의 핵은 총대중시, 군사선행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국가이고 당이며 민중이라는 전혀 새로운 원리에 바탕하여 군사를 국사중에 제1국사로 내세운다. 말로 지킬수 없는 것이 존엄이고 구걸로 이룰수 없는 것이 번영이다. 존엄과 번영의 가장 위력한 담보는 힘이다. 힘이 약하면 망국, 망민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어제는 패권세력의 난무장이 된 이라크와 유고에서 오늘은 반테러전의 희생물이 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

국력은 총대에서 나온다. 이북은 강군이 있어 강국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불면불휴의 선군영도로 이북군을 세상제일의 강군으로 키우셨다. 군강화에 기울이신 장군의 노고는 이루헤아릴수 없다. 그 분께서는 21세기의 첫해에만도 3만여리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130여개단위의 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셨다한다. 단순한 시찰이 아니였다.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고 휴일도 명절도 없이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시며 걷고 걸으신 숭고한 헌신, 위대한 사랑의 행로였다. 그 행로속에 이북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이북군이 보유한 최강의 무기는 특유의 정신력이다. 이북군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중을 위해 총폭탄, 자폭용사가 되는 것을 제1사명으로, 자랑으로 여긴다. 미국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첨단컴퓨터로도 측정할수 없고 수천기의 미사일로도 당할수 없는 이북군의 이 특등 기질앞에 미국은 전율하고 있다.

이북군의 무장장비 또한 막강하다. 지구도 깨버릴수 있고 침략자들이 행성 어디에 있건 무주고혼으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과 완벽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군사전문가 조셉 말리체프가 대북침공에 투입될 70만의 병력이 개전초기에 소멸되고 북의 가공할 불포구앞에 미본토도 초토화될수 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일 뿐이다. 고 한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북은 천출명장의 영도따라 미국을 총한방 쏘지 않고 이기는 신화적인 승전사를 엮어가고 있다. 북은 선군의 총대로 침략의 총검을 제압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있다. 귀에 거슬리면 어느 나라이건 융단폭격을 가한다, 지상군을 파견한다하면서 마구 불질을 해대는 미국이지만 이북에만은 총탄한방 날리지 못한다. 이런 현실앞에서 뜻이 있는 이들은 이북군에 의해 세계 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은 미국이 아니라 이북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옳은 평이다. 장군께서 치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 지켜지는 평화의 덕은 우리 이남민도 입고 있다.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이 땅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참혹한 전란에 휩싸여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인도 없고 국회의사당도 없고 공단도 언론사도 잿더미속에 묻힌 황량한 폐허로 되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몸서리쳐진다. 그러니 선군정치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정치인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은 마땅히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여 주시는 **김정일**장군께 큰절을 올려야 한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는 번영을 가져오는 창조의 보검이다. 선군정치에는 막강한 국력을 다지는 비결과 무궁한 번영을 이루는 묘술이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을 국토방위도, 강성대국건설도 다 맡아하는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전민이 군의 기개와 정신을 본받도록 하신다. 군이 모든 부문에서 앞장서 돌파구를 열고 전민이 그에 발걸음을 맞추니 북에서는 비약의 동음이 세차게 울린다. 21세기 경제문제연구소는 올해초 북한 경제실상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방이 중시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에서는 군이 전면에 나설수록 경제성장속도가 빨라지는 특이한 현황이 계속되고 있다. 군에 의해 북은 전반적 경제분야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진정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생명선일뿐 아니라 번영의 대문을 여는 행운의 열쇠이다. 선군정치는 결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더 높이 들어야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있는한 결단코 내려오지 말아야할 영원한 기치이다. 인류는 소국도 대국의 횡포를 제압할수 있게 하고 후진국도 선진국을 앞설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 선군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세계 정치가들은 장군의 선군정치를 따라 배우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이 행성의 60여개 나라에서 300여회 이르렀다는 사실에서도 그 활력이 십분 이해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표현대로 북조선에서 타번지는 선군정치의 열기가 바야흐로 세계 모든 지역에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세계 정치대세가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에 의해 주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따라서 미국의 오만과 독단, 전횡은 어디서나 기가 꺾이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인류는 선

군승리가 꽃피우는 평화와 번영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 세기의 사회상

21세기에 펼쳐질 지구촌의 면모는 **김정일**자주세상이다. 인류는 자주화된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인류공동의 이 염원을 실현함에 있어 우리 민족앞에 나선 당면과제는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중이 자주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며 민족적 대번영의 첫걸음이다.

허나 통일에로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그에 아부해 일신일파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꾀하는 수구보수세력, 한반도의 분단에서 어부지리를 챙길 흑심을 품은 외세, 이 2중 3중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껴야한다. **김정일**장군께서 이 통일의 열쇠를 쥐시였다. 민족자주 바로 그것이다. 자주없는 통일이란 없다. 자주는 최고의 통일원칙, 만능의 통일보검이다.

반세기 넘어 막혔던 통일의 물꼬를 확 터놓은 역사적인 6월의 만남과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장군의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의 하나이다.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의 진수는 **김정일**장군께서 천명하신 우리 민족끼리이다. 2001년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아래 자주통일의 대행진곡을 장엄하게 울렸다.

천하절승 금강산에서 남북의 노동자, 농민들이 서로 만나 통일의 주역이 될 의지를 다졌다. 남북의 각계층 인사 670여명이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기념하여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열기를 북돋았다. 8월에는 통일의 성도, 평양의 창공높이 솟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열고 굳건한 자주통일의지를 시위했다. 이 땅에서 터져나오는 자주의 외침은 전례없이 드높다. 미군철수, 미국의 내정간섭반대의 구호가 각계에서 세차게 울려나왔다. 이북에 대한 위협공갈로 한반도에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며 전쟁광신자 부쉬의 대북압살정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항의투쟁이 날을 따라 격렬해지고 있다. 반미자주로 민족적 존엄을 찾고 통일에로 가는 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이다. 내외의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려하여도 **김정일**장군께서 몰아오신 자주의 폭풍에 밀려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히고야 말것이다.

미국의 동북아문제전문가인 커머스 존스는 자주의 원칙이 있어 한반도의 남북민족은 태평양건너 불량배국가 미국을 몰아내고 분열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양전략연구소 이박사는 장군의 자주노선에 의해 한반도는 전차가 전차길 가듯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통일의 종착역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정일**장군께서 자주의 기치높이 겨레를 6.15공동선언이행에로 이끄시어 통일은 겨레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자주로 통일을 이룬 한반도에는 외세가 없고 예속이 없는 자주강국이 우뚝 솟을 것이며 우리 겨레는 존엄높고 긍지로운 자주민족으로 시대의 선망을 모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우리의 민족적 과제가 조국통일이라면 통일민족의 국제적 사명은 자주세계창조라 할 것이다. 21세기는 자주세상에서 살려는 인류의 꿈이 현실로 꽃펴나는 세기이다.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찬미되고 패륜패덕과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부패한 자본사회에 사람들은 환멸을 느낀지 오래다. 인류는 자본이 낳은 인간증오, 인간말살의 세상을 갈아엎고 인간사랑, 인간만복이 구가되는 사회를 세우고저 투쟁한다. 인류의 이 투쟁 역시 **김정일**장군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인류가 바라는 자주의 세상을 바로 저 이북에 세우셨다. 거기에는 황홀한 자주사회의 선경이 펼쳐져 있다. 이북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흥하며 자위로 굳건한 이상향이다. 이북 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도 있듯이 무릉도원 꽃펴나 흥에 겹고 제 손으로 세워서 멋있는 이북 이다. 아름다운 인간들이 더불어 단란하게 살아가는 북은 그야말로 자주의 별천지이다. 이 행성에 이북처럼 희한한 인간만세의 세상은 없다. 온 나라, 온 민중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특이한 광경도, 이름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다투어 피와 살, 뼈를 바치는 것이 범상한 일로 되고 있는 인간사랑의 광경도 북에서만 볼수 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민중의 자주적 요구실현에 복종되는 사회, 어린이가 왕으로 우대받고 누구나 무료교육, 무상치료, 무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복지사회. 참으로 이북은 민중을 위한 시책만이 보석처럼 가득찬 지구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옥동자이다.

토마스 모어가 환상으로 그려본 인간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는 이상국이며 미국 종교지도자 빌리 그레이엄목사가 말했듯이 예수가 가서도 할 일이 없는 지상천국 이 바로 이북이다. 그래서 이북은 우리 민중과 인류의 한없는 동경을 모은다. 유럽의 한 기자는 지금에 와서 명백해진 것은 조선이 새 세기의 역사를 개척하는데서뿐 아니라 인류가 건설하게 될 미래의 본보기를 창조하는데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썼다. 나는 이북과 같은 사회가 바로 21세기 인류가 살게 될 자주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이북에 자주세상의 표본을 세우셨을뿐 아니라 세계의 자주화흐름을 이끌고 계신다. 새 세기 첫해 자주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장군의 외교활약은 얼마나 눈부신 것이였던가. 중국과 러시아에로 이으신 거룩한 대장정, 15개 회원국을 망라한 유럽연합대표단 접견,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참으로 행성을 진감시킨 제1국제사변, 특대사변들로 지난 한해를 들썩케한 장군이셨다. 세계를 일극화하려는 강권의 지배전략에 철추를 내리고 시대의 흐름을 다극화, 자주화에로 확고히 방향 잡아주신 장군이셨다. 행성의 초대국도 열강도 없는 독립, 자주, 평화의 세계를 세우고저 장정에 장정을 이어가신 **김정일**장군에 의해 2001년은 실로 자주세계창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오늘 세계정치의 방향타를 잡으신 장군의 행보에 따라 세계의 정치판, 국제질서가 달라진다는 목소리가 동서방에 울려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북은 세계자주화의 구심, 이상사회건설의 선도국으로 더 높이 부상되고 있다.

자주를 지향하고 번영을 바라는 나라들은 다 이북을 찾아간다. 행성의 대소국들이 저마다 평양에 선린과 화해의 악수를 청하여 열띤 수교경쟁을 벌인다. 한때는 북을 적대시하고 경원시하던 나라들도 수교의 다리를 쑥쑥 건너며 평양으로 달려간다.

세계는 평양으로! 이 격동적인 현실을 보며 나는 **김정일**세상,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 영주하려는 인류의 소망을 읽는다. 영국신문 네이션타임스 정치주필 히스레네프가 터친 격정 그대로 21세기에 **김정일**장군께 운명을 맡긴 인류는 영원히 암흑이 다시 없을 세계, 비관과 절망이 영영 사라지고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를 마중하게 될 것이다.

정녕 21세기는 자주의 화원, **김정일**세상으로 찬연히 빛날 것이다.

* * *

김정일사상이 시대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고 **김정일**선군정치가 승리의 기치로 높이 휘날리는 **김정일**세상이 만민의 요람으로 펼쳐질 21세기. 내다볼수록 새 세기는 밝고 희망차다. 장군의 의지에 따라 역사가 흐르고 장군의 위인상으로 빛날 21세기말 장군께서 이룩하신 대업적을 노래하게 될 미래의 필자는 또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넘칠 것인가.

겨레여! 인류여! 통일되고 부흥할 내 나라, 평화롭고 번영할 정의로운 세계의 내일을 앞당기자!

21세기 태양을 따라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해가자!

휘황찬란한 주체태양의 세기, **김정일**장군의 21세기 만세!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북측대표단 성명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북과 남의 각계층 민간단체들은 올해의 첫 통일행사로서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업들을 완료하였다.

이번 행사의 순조롭고도 성과적인 개최는 북남민간급접촉과 대화는 물론 전반적인 북남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의 책동에 의하여 행사를 하루 앞둔 시각에 행사발기단체인 ≪통일련대≫ 대표들의 행사참가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전면 ≪불허≫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전국련합≫, ≪민주로총≫, ≪한국로총≫, ≪민주로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전농≫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대표 90여명이 이번 금강산행사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으며 따라서 예정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이 무산되는 참을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우려를 금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지금까지 북남통일행사때 남측의 몇몇 인사들의 참가가 불허된 사실들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남조선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대표들이 통일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아 나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책동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6.15북남공동선언자체를 무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하는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부쉬의 남조선행각직후에 서울에 이어서 금강산에서까지 반부쉬, 반미의 목소리가 터쳐 나올것이 두려워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을 부추겨 음으로 양으로 금강산통일행사에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행사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불순한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바야흐로 그 막을 올리려던 금강산행사가 미국의 파괴책동으로 인하여 무산되게 된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반통일적죄행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 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것을 이번에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번 금강산 공동행사가 예정대로 치르어 질수 없게 된데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그 죄과를 똑똑히 계산할것이다.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으나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이번의 금강산통일행사는 비록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남조선의 ≪민화협≫과 ≪7대종단≫이 이 행사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더욱 굳게 련대하여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주체91(2002)년 2월 27일

금 강 산





미국과 이남 반통일세력 금강산행사 파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주체91(2002)년 3월 3일



이번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되였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이 파탄된 사태는 온 겨레에게 새로운 민족적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금강산행사는 새 세기 두번째 해의 첫 통일행사로서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의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민족단합의 회합, 평화와 통일의 대회로 훌륭히 준비되였다.

그러나 이 력사적인 통일행사가 막을 올리지 못하고 파탄된 사태는 온 민족에게 누가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누가 대결과 전쟁,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올해 년초에 평양에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가지고 3대호소, 3대제의를 내놓은데 기초하여 남조선의 여러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각계인사들과 폭 넓게 손잡고 이번 금강산행사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축전으로 장식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옹력에 의하여 금강산현지에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을 통일사절로 맞이하고 환대할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 져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우리와 정 반대의 사태들이 연출되였다.

남조선민간단체들의 통일행사에 간섭하여 불청객인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야당들의 시비질이 계속되였으며 결국은 당국의 부당한 ≪방북불허≫조치라는 차단봉이 내려져 금강산으로 오려던 남조선통일운동단체대표들의 발걸음이 모두 묶이여 버리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였다.



민족단합대회의 앞길을 가로 막은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이 행위는 의심할바 없이 우리 민족내부의 대결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비렬한 파쑈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전쟁과 분렬을 꾀하는 침략행위이며 민족반역행위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이와 같이 반평화, 반통일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번 금강산행사의 파괴자로서 락인되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오늘 정세는 변하였으며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총칼로 억누를수 있었던 어제가 아니며 남조선인민들도 미국의 식민지지배에 순종하며 민족적존엄을 유린당하는데 버릇되였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이번 부쉬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이 더는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바라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번 금강산행사를 파탄시킨 미국의 행위가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의 그 어떤 좌절을 가져 온것이 아니라 도리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투쟁의 도화선에 대중적인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한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반부쉬, 반미기운이 높아 지는것이 두렵고 겁난다면 남조선통일운동단체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가로 막으려 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침략군대와 살륙무기를 걷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금강산행사를 파탄시키려는 미국에 추종함으로써 6.15공동선언에서 민족앞에 한 자기의 확약을 스스로 져버리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극우반통일세력들이 민족의 통일념원을 거세하며 말살하는 행위를 걷어 치우고 민족앞에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대북강경정책 추종 리회창 망발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5호, 주체91(2002)년 3월 2일

리회창은 지난 2월 21일 ≪한미가 상호리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는 지어 ≪북의 과도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까지 줴쳤다.

보도는 리회창이 미국상전의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동족을 자극하고 대결을 선동해 나선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죄악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그가 그처럼 악질적으로 날치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보다도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앉아 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미국 호전광들의 특등앞잡이가 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엄중히 위협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의 파멸이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반역은 없다.

리회창과 같은 매국노, 호전광의 망동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우리 겨레는 그 재난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리고 민족내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할것이다.

리회창은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와 작당하는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체제 ≪변경≫ 운운 상식밖의 추태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2002)년 3월 4일

지난 2월 25일 미국대통령 부쉬가 워싱톤에 있는 ≪미국의 소리방송≫본부에 나타나 그 무슨 ≪연설≫이라는것을 통해 존엄 높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또다시 ≪폐쇄체제≫니 뭐니하고 함부로 중상해 나섰다.

우리의 정치체제를 련이어 걸고 드는 부쉬의 망발과 최근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운운한 그의 폭언을 련관시켜 볼 때 여기에는 단순한 도발로써만 볼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인민대중을 분리시켜 놓고 미국식가치관과 ≪자유≫의식을 우리 사회에 주입시키는 한편 군사적압력을 가한다면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처럼 우리의 제도를 ≪변경≫시킬수 있으리라 타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방대한 무력을 동원시켜 연약한 정치세력에 불과했던 타리반을 붕괴시킨 미국은 오만하게도 자주적으로 나가는 모든 나라들을 미국주도의 신식민주의지배체제에 얽어맬 침략적대외정책구상을 국가정책으로 공식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호전적구상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부쉬와 미국의 대외정책담당자들은 저들이야말로 정치적미숙아임을 스스로 드러 내 놓았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체제이다.

수령과 당, 대중이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우리의 정치체제를 ≪변경≫시켜 보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 격의 상식밖의 추태이다.

부쉬와 미국의 대외정책담당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력과 초보적인 리성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할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헤덤비고 있다는데 부쉬행정부의 비극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운명이고 미래인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삶의 일차적인 요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이든 감히 최고수뇌부를 중상하는 자들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의 타격력은 방대하고 무자비하며 그것을 피할곳이란 이 행성에는 없다.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2002)년 3월 5일



보도에 의하면 2월 25일 미국무장관 포웰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 추진할것≫이라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

이것은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남조선행각기간 불어 댄 ≪대화≫타령의 모조품으로서 론의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미국의 외교당국자들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자주 튀여 나오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대화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지 않을수 없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시기 조미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대화를 재개해 나가자는 립장이다.

그런데 부쉬행정부가 이미 이룩된 조미합의를 존중하기는 커녕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고 더우기 우리 제도자체까지 거부하는 망발을 줴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서는 부득불 부쉬행정부와 대화탁에 마주 앉을 명분도 신뢰감도 없어 졌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는것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제도를 존중받기 위한것이지 우리의 무장을 해제 당하고 제도까지 내놓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부쉬행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대화≫는 필요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국측이 지금 떠들고 있는 ≪벼랑끝전술≫도 아니며 대화를 위한 ≪전주곡≫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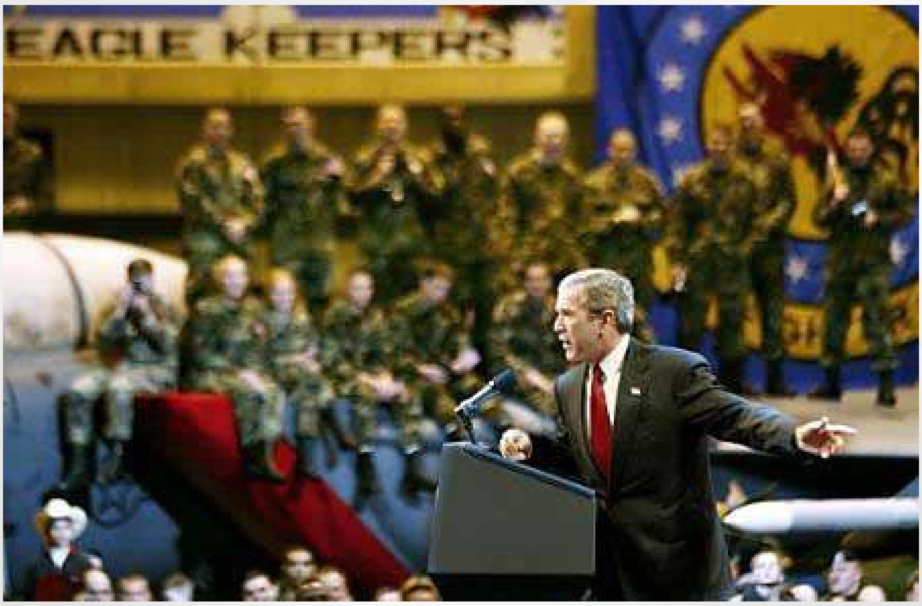
미국의 ≪대화≫론은 한마디로 말해 ≪채찍≫론의 위장물이며 우리에 대한 ≪트로이목마≫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부쉬가 이번에 남조선을 돌아 치며 ≪가장 위험한 정권≫이니 뭐니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 보인것은 그들의 ≪대화≫타령의 기만성과 허위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특별히 엄중시 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부쉬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변경≫까지 강박하려 든것이다.

물론 이것은 입김으로 바위를 흔들어 보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악랄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반드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악의 축≫론을 내들고 ≪선제타격≫의 전쟁폭언까지 줴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고 다른 편으로는 ≪대화≫타령을 떠들어 대는 진의도를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다.



부쉬는 자신의 전쟁행위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반미감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를 무마시키는 한편 ≪대화≫를 우리에 대한 압력공간으로 악용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기회를 노리다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계밑에 ≪대화≫타령을 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대화≫타령이 북침전쟁 폭음으로 번져 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우리는 미국과 한번은 결판을 보아야 하는것만큼 만단의 전투준비를 취해 나갈 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 일방적 구속되지 않을 것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2002)년 3월 5일

최근 미국외교당국자와 미국회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핵개발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며 경수로건설을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떠들어 대는 부쉬식≪직설화법≫을 본 딴 미국정객들의 개인적의사인지 아니면 미행정부와 국회의 공식적립장과 견해를 반영하려 한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평하고 있다.

명백한것은 현부쉬행정부와 국회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의 강경보수세력들이 지금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미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리정표로 되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여 있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시종일관 성실히 리행하여 왔다.

오늘 미국이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기본합의문파기를 위한 구실을 내대고 있으나 그것은 흑백을 전도한 강도적궤변에 불과하다.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과정과 오늘의 현실은 미국측이 애당초 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현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반감을 로골적으로 표현하면서 합의문수정에 대해 떠들다가 드디여 합의문파기주장으로 저들의 속심을 완전히 드러 내 보였다는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되는것만은 사실이나 미국이 그것을 전면백지화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빈종이장을 놓고 그 의의만을 강조하지 않을것이며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어이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보상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것이다.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왜 무산되었나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되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7천만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세력들의 반통일적 작태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셈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된 것은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책동과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기인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방한에 즈음해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은 규모와 구호, 주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것들이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부쉬의 방한을 반대해 주한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은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항거의 표시라고 봅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의 호전계층은 금강산에서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공동행사를 치루면 반미의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을 부추겨 민족공동행사를 무산되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은 통일연대 대표들의 참가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통일부에 압력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의 방북승인을 불허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방북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은 우익보수세력과 통일부가 말한 것과는 달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방북신청을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불허했으니 이 얼마나 비열한 반통일적 작태입니까.

지금까지 방북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방북길을 극악하게 막아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통일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보수세력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도 관철시킬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되어 통일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는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과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악의 본축을 단죄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4일 ~ 6일





지구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있다. 선을 찬양하고 악을 참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에서 선은 누구이고 악은 과연 누구인가.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강도가 주인을 보고 강도라고 몰아붙이는 격의 파렴치하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반세기이상의 북미관계사를 엄중히 투시해볼때 순간마다 악행을 저질러온 장본인은 언제나 미국이였고 그로인해 헤아릴길 없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바로 이북이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전문하는 사가로써 부쉬의 망언에 대한 분격을 누를길 없어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

1. 살인마 미국

미국의 대외관계사가 항용 그러하듯이 북미관계의 **도 ***. 미국은 수립된지 2년도 안되는 이북을 요람기에 강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악의 제국이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의 야만성은 낱낱이 드러났다.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 이것이 이북에서 미국이 진행한 진짜 전쟁이였다. 개전초기 미8군 사령관이였던 워커는 수하 장병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했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난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그대들은 될수 있는대로 많이 조선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미국시민으로써의 임무를 다하라.≫

상부의 특명으로 합법화된 살인교리에 따라 미군장병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한 이북에서 귀축같은 만행을 자행했다.

미군은 평양에서만도 1만5000여명의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했다. 그중에서 2000여명은 평양감옥마당에서 단꺼번에 총살했다. 1950년 12월 4일과 5일에는 대동강다리를 폭파하여 4000여명을 죽였고 사리원, 해주 동해상에서는 기총사격과 폭격으로 3만여명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신천군에서는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5380여명, 안악군에서는 1만9072명, 은률군에서는 1만3000여명, 풍산군에서는 5590여명, 해주시에서는 6000여명, 남포시에서는 1511명, 강서군에서는 1261명, **시에서는 5000여명, **군에서는 1400여명, 신안군에서는 1560여명, *천시에서는 1342명, 합천군에서는 1400여명, **군에서는 5545명을 학살했다.

미군이 이북을 일시강점했던 50여일 기간에 살해한 주민수는 무려 180만에 해당된다. 이것은 하루평균 2만여명을 학살한 것으로 된다. 파쇼살인마로 악명을 떨친 히틀러는 ******과 같은 수용소에 화장터를 차려놓고 매일 수천명씩 무리로 죽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에서 매일 그 수십배를 죽였다. 미국이야말로 히틀러도 경악할 살인악마이다.

미국이 이북에서 자행한 살인만행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 (적소공분)의 이북 주민들은 미군야수들에 의해 중세기적인 악행을 받으며 총살됐다. 미군은 이북강점시 체포한 사람들을 노동자본이라고 해서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냈으며 사지를 찢어죽였다. 어떤 농민은 머리에 못을 박고 톱으로 쳐서 죽였으며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쇠줄로 코를 꿰어 끌고다니다가 학살했다. 수많은 여성들을 능욕하고 젖가슴과 국부를 도려내어 살해했다.

1952년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이북 지역에서 미군이 감행한 만행을 조사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은 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여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조선 일반주민들에 대하여 미군 군부들이 범한 대량적 및 개별적 학살과 야수적 행동의 증거는 감행된 범죄의 양에 있어서나 또한 그 자행된 방법의 잔인성에 있어서 전례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북미관계사의 서막이다.≫

부쉬는 9.11대규모습격사건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그는 6.25전쟁시기 이북에서 미군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부쉬는 그후로부터 **과 **를 수호하겠다고 역설했다. 하다면 그는 미군의 야만적 폭격으로 잿더미된 이북의 3700여개의 성당들과 5000여개의 학교, 1000여개의 병원들과 260여개의 극장 및 영화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미국은 얼굴***붉혀야할 필요가 있는 나라이다.≫

***북미관계의 서막은 미국이야말로 선이 아니라 악의 원흉이고 화신이라는 것을 피로 고발하고 있다.

2. 최대의 테러국가

부쉬는 이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있는 악의 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역사는 대량살상무기로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미국이 6.25전쟁중 원자탄사용을 지적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휴전후에도 미국은 이북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압살정책으로 인해 이남은 재침의 최대기지로 화했다.

이북에 가해지는 미국의 최대위협은 핵위협이다. 헌데 이남에는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어있다. 군산 미공군기지는 핵무기의 중심적 저장기지로써 수백발의 핵폭탄과 핵**, 핵지뢰 등이 콘크리트 원형창고에 쌓여 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에프16전폭기들로 구성된 ***전투폭격기 부대가 임의의 순간에 발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북은 미국에 의해 150평방 킬로미터당 1발, 2만여명당 1개의 핵참화를 겪어야할 가공할 위험에 직면해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금 이북을 겨눈 미국의 핵전력은 이북민중을 몇십번 멸족시키고도 남을 양이다. 이것이 부쉬가 떠드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의 진상이다.





미국은 핵무기외에도 각종 **과 최첨단살인병기로 이북을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침을 노린 미군의 전력에는 4만명의 주한미군외에도 미본토의 무력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미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북침시나리오인 5027-98작전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전쟁때에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1600여척의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를 투입하려고 획책한다. 이것은 만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 **전쟁에 동원한 병력을 훨씬 웃도는 최대규모이다. 지구촌의 어느 나라도 이처럼 방대한 침략무력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가 없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정치경제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북에서 벌어졌던 고난의 행군도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한다. 그러한 미국이 자기 영토의 대략 74분의 1,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이북을 반대해 자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살정책으로 하여 이북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차단당하고 모든 것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없었더라면 이북은 ****없다. 이미 오래전에 경제강국의 선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잔인무도한 대북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지구상에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죄악의 씨앗이다.

미국은 의심할바 없이 이북의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방면으로 테러를 가해왔고 이 시각도 가하고 있는 최대의 테러국이다. 북미관계의 50여년사는 명명백백히 보여준다. 악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본축이고 복마전이며 원흉이다. 부쉬의 망발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거꾸로 된 논리이고 기만이다. 아울러 그것은 일방주의를 표방하는 부쉬미행정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며 미국식가치관의 극치이다.

이 세상에 미제국주의가 있는한 악의 근원은 없어질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실현될수 없다. 나는 각계 민중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 민족의 간악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해 가차없는 성전을 벌이자. 부쉬 미행정부의 무모한 대북압살정책을 산산히 짓부셔버리자.

특등매국노의 궤변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4일～6일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남북사이에 잘 진전되던 화해와 협력관계가 최근에 와서 중단상태에 놓이게 된건 전적으로 호전광부쉬의 대북강경책동때문이라면서 부쉬의 악의 축망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우리 민중은 통일의 암인 부쉬의 방한을 전쟁행각으로 낙인하고 결사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극악한 반통일매국역적인 이회창패당만은 상전인 부쉬와 한짝이 돼서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책동을 감행하고 있어서 민중들의 규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김문일씨의 글 ≪특등매국노의 궤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요즘 항간에서 미물이 더 악질이다라는 말이 파다하게 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염두해두고 하는 말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최근 부쉬의 한국행각시 그가 한 친미사대매국적인 언동을 놓고 봐도 그것을 잘알수 있다.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핏대를 세우고 기염을 토하면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쉬는 이번 한국행각후에도 또다시 북을 걸고들며 대량살상무기문제니 그 해결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느니 뭐니하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망발을 거리낌없이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양심이 비난과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은 부쉬의 호전적 망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라는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늘어놓아 우리 국민을 경악케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미국에 환심을 사서 대권욕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친미사대매국노의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고있는 것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때문인가. 아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북의 군사력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의 무력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파국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적 군사력이지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북을 걸고들면서 위협이니 긴장상태니 뭐니하고 주제넘은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식민지주구의 비열한 억지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삼으며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장본인은 미국 침략세력이다. 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월한 신소재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땅에는 이미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부쉬행정부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지게 될지 모를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부쉬가 이번에 한국을 행각한 목적도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최종현지확인을 위해서였고 전쟁시간표를 짜기 위해서였다. 부쉬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고조되어 경향각지에서 가열차게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 이회창에게는 미제침략군의 위협적 존재가 보이지 않고 우리 민중의 거세찬 반미함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미군야수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인해 우리 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온갖 재난이 이회창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인가.

이 모든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는 **이나 ***그가 부쉬행정부의 도발적인 처사는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민족의 재난속에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식민지충견의 가장 추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빌어먹은 강아지보다 못한 천하에 둘도 없이 너절한 인간쓰레기의 어리석은 작태이다. 이런 자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진다.

그가 미국행각시 미국호전광들을 찾아가 굽신거리며 미국의 대북강경책의 충실한 집행자가 될 것을 맹약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쉬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아 호전적인 망발을 거리낌없이 한 것도 이회창과 같은 미국의 충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개가 이 땅에 있는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기대할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룰수 없다.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미국의 오만과 전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우리 민중은 더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할 것이다. 나아가 북침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족이 돌이킬수 없는 미국의 핵전쟁의 참화를 입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등친미사대매국역적인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제거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국민은 이회창척결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국민이 살고 민족자주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열린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5일～26일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원입니다. 이 민족 최대의 숙원을 이루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나서는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간악한 도전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이 땅의 노동대중을 비롯한 우리 겨레의 통일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북침전쟁책동은 민족자주통일의 최대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가로타고 앉아 우리 민족을 둘로 분열시켜 놓았으며 세기가 바뀌고 한반도에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에 와서도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쉬행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도상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쉬는 연두교서 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 건 이러한 폭언이 그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던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어놓고 기어코 북침전쟁을 도발해 이 땅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과 반통일분자들의 대북대결책동도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며 한사코 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이며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은 미국에까지 찾아가서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매국역적은 미국 고위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이북에 대해 변한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반대했습니다. 뿐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습다.

이회창은 미국행각에서 돌아와 국회에서 한 대표연설이라는데서도 이같은 망발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이 우심한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고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대화들이 중단되고 한반도에 또다시 대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때문인 겁니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과 보안법도 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이북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주적론과 함께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범죄시하며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언제가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이 굳게 단결해서 미국의 침략과 간섭,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대중은 생존권사수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강요로 우리 노동대중의 삶을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도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입니다. 결국 우리 노동대중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노동조건이나 개선하고 임금이나 얼마 더 올리는 문제와는 대비조차 안되는 엄청난 그리고 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대중은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노동대중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이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폭로단죄하는 운동을 더 힘있게 벌여야합니다. 이회창은 그 가문부터가 역적의 가문입니다.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사대매국행위는 이회창의 대에 와서는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행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의 죄행을 노동대중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알려 우리 민중이 이회창의 친미사대행위를 똑똑히 알게 해야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뿐 아니라 민족의 명부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는 겁니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을 이 땅에 그대로 놔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아직도 백주에 머리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이 땅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노동대중여러분!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의 걸림돌이 제거될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이룩되게 됩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의지밑에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할때 민족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세게 일고 있는 반부시반미열풍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1일~3일

악의 축 망발로 한반도정세를 전쟁전야로 몰아간 호전광 부쉬의 방한은 우리 민중의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일씨 모시고 김현규씨 얘기 나눠드립니다.



김현규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부쉬의 악의 축 망언과 관련해 반미기운이 세계적 판도에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온 세계가 부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 분별없이 날뛰는 전쟁광신자, 악의 화신으로 낙인하고 부쉬호전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속에서 반부쉬반미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중의 반미열풍이 얼마나 거센가는 부쉬의 망언을 규탄하고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계 민중들속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미기운과 여기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각계 민중의 반미기운은 부쉬의 악의 축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됐죠. 반미투쟁기운이 지금처럼 강한 예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 일 :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생결단을 하고 반미투쟁이 강렬하게 전개된 예는 흔치 않아요.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특히 부쉬가 9.11사건후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지난 1월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과 그의 방한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어요.
부쉬는 9.11사건으로 북을 테러사건과 연관시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북에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지 않았습니까.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건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북을 악의 축이라고 떠드는 건 한마디로말해서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은 거죠. 북에 대한 이같은 선전포고는 단순히 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멸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천만한거죠.
각계 민중은 부쉬의 이같은 전쟁광기를 더이상 보고만 있거나 용납할수가 없어 반미투쟁에 분연히 일떠섰던 거예요. 악의 축이라는 부쉬의 망언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인 1월 31일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변,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농, 민언련, 민교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대표들은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갖고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단호히 규탄배격했어요.
그들은 서한에서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규탄했고 전쟁광신자 부쉬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고 했어요.
김현규 : 다른 많은 단체들 역시 반부쉬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요.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부쉬의 머리속에는 전쟁생각뿐이라면서 부쉬가 전쟁을 계속 떠든다면 9.11사태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국청년연합회는 성명에서 부쉬의 한반도긴장조성을 결코 묵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부쉬의 망언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책동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은 부쉬의 망언, 부쉬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논평에서는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총련 역시 부쉬의 망언은 북과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선포라고 낙인하고 전쟁광신자 부쉬의 방한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밖에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에서 부쉬의 망언과 부쉬방한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반부쉬반미투쟁은 부쉬의 방한을 계기로 절정에 이르렀죠.
오 일 : 정말 최고조를 이뤘어요. 각계 민중과 사회단체 모두가 반부쉬반미투쟁에 떨쳐나섰으니까요. 부쉬는 이번에 각계 민중의 투쟁이 얼마나 거셌던지 숨도 크게 한번 못쉬고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었다가 줄행랑을 쳤어요.
부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하루전인 지난 18일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예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700인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문에서는 부쉬와 부쉬행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태도에 민족적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고 또한 부쉬가 연두교서에서 한 망언은 군사적 선제공격을 시사한 것이라고 규탄했어요. 선언문에서는 또한 당국이 부쉬에게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똑바로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겨레의 숭고한 뜻과 굳건한 의지는 그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부쉬의 방한을 반대해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격문과 성명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부쉬의 민족분열, 전쟁책동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부쉬의 방한을 배격하는 플랭카드들이 나붙었고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점거당하고 미대사관에 오물세례를 안기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부쉬투쟁은 정말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김현규 :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각 지방들에서도 부쉬의 망언과 부쉬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오 일 :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부쉬방한규탄광주전남대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을 비롯한 80여개 단체들이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일정을 발표했어요. 인천지역에서도 인천통일연대를 비롯한 36개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부쉬를 반대하는 평화선언을 발표했어요. 전역에서의 반부쉬투쟁의 불길은 말그대로 활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부쉬는 방한 ******* 분노한 각계 민중의 항거에 부딪혔던 거죠.
김현규 : 각계 민중이 벌인 부쉬방한반대투쟁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였다고 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의식이 얼마나 거세고 강렬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 격렬하게 벌어진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랄까 이 문제에 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 일 : 이번에 격렬하게 벌어진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은 세계적 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각계층과 사회단체 전지역을 포괄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반미운동이 한총련을 비롯한 운동단체들 중심으로 전개돼 왔죠. 하지만 오늘엔 반미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됐어요. 이번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단체, 청년학생조직과 종교단체,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들,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등 모든 단체들이 적극 참가했어요. 이번처럼 각계 민중, 각 단체가 대중적으로 반미투쟁에 동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숭미공미사상에 물젖었던 사람들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부쉬투쟁에 적극 참가했고 정계내에서도 부쉬의 망언을 규탄하면서 부쉬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거죠.
김현규 : 이번에 각계 민중은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조직화되고 단결된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것 역시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일 : 그렇죠. 물론 지난 시기에도 반미투쟁단체들과 조직들이 결성되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긴 했지만 그것은 규모도 작았고 투쟁도 제한성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벌어진 반미투쟁은 조직화측면과 단결력에 있어서 종전에 비할바없이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60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부쉬정권의 전쟁책동을 반대해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을 결성했고 이번에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반대해 조직적으로 맞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3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행각을 규탄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30여개의 단체가, 서울에서는 297개 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반대해 투쟁해 나섰어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예인, 시민단체성원 등 각계층 민주인사들이 참가한 700인 평화선언문발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1만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부쉬방한반대 범국민대회 등은 반부쉬반미투쟁의 조직화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김현규 : 이번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투쟁형식과 방법에서 다양하고 격렬한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일 : 그래요. 종전에도 반미투쟁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폐기,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민간인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나 형식과 방법에서는 가두시위, 집회, 서명운동, 성명서발표 등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이번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부쉬행각을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도처에 내걸었고 부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발표, 격문, 성명서, 논문발표, 기습시위,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 주한미대사관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위, 미대사관에 오물투척, 단식투쟁, 성조기화형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고 격렬성에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쉬행각노정을 따라가며 항의투쟁도 벌였어요.
김현규 : 각계 민중들이 내든 반부쉬반미구호도 정말 전투적이고 강렬했다고 보는데요. 이것 역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지금까지 반미구호들이 많이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부쉬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구호가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쉬는 악의 화신 , 미국은 악의 본축 , 미국은 악마의 제왕 , 부쉬는 제발로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등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후련한 그런 구호들이 각계층 민중속에서 울려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수반들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할때에는 공항에서 환영군중이 나오고 방문노정에는 환영인파로 붐비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쉬는 한국행각시 도둑고양이 기어들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쉬는 부랴부랴 헬기로 서울로 향했고 우리 국민들앞에는 얼굴 한번 드러내지 못했어요. 부쉬는 우리 민중의 항거에 부딪혀 안절부절 못하다가 줄행랑을 쳤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준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이번에 각계 민중들속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은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의식이 얼마나 높고 격렬한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쉬호전집단이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하지만 그들이 끝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르면 우리 국민, 우리 온 민족의 거세찬 반미자주화의 불길에 타죽는 결과만이 차례질 거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면서 무력으로 제압해보려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화신, 악의 본축이라고 하겠죠. 부쉬가 제아무리 세계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일국세계로 만들려고 해도 그건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2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에 2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RSOI)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극히 위험천만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실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대북강경전쟁책동으로 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극악한 미 호전광부쉬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면서 **** ******** **********.

얼마전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어 주한미군과 이 땅의 호전분자들과 비밀리에 북침전쟁준비를 ****하고 전쟁모의를 벌였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해 이 땅에서 강행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침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지지니 이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것들이 저들의 음흉한 북침기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며 이북의 이익이요 뭐요 하는 것들도 이북을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타고 앉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극악한 대북강경책동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간의 6.15공동선언 이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기어코 이 땅에서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획책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적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때만이 민족의 화해도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군호전분자들이 민족의 단합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물리칠 대신 그들과 한짝이 되어 민족공멸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고 있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군호전분자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만 혈안이 되어온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백일하에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미호전분자들의 전쟁연습책동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한미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명심하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으로 이를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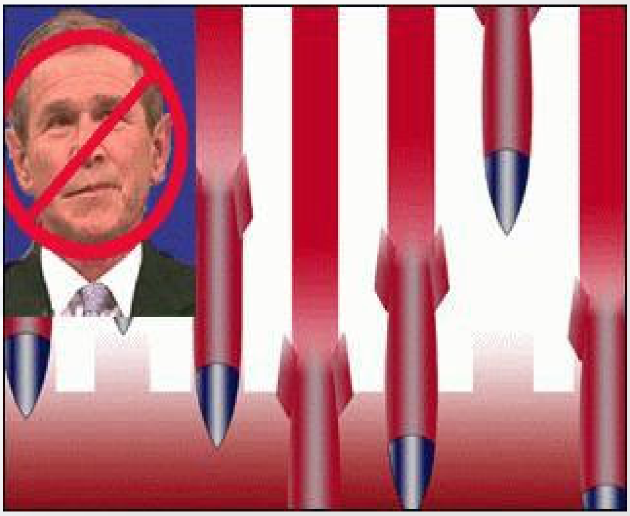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입니다.

한미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모한 광기가 파멸을 앞당기는 길임을 똑바로 알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 전에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결산

2월 27,28일 금강산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많은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행사의 무산은 남북 민간교류가 처해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으며 앞으로 풀어야할 여러 심각한 과제들을 남겨놓았다.

2박 3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돌아보며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방북불허... 불투명해진 행사참여

25일 오후 7시경 통일부가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 신청자 중 신창균 통일연대 명예대표 등 46명의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행사를 준비해왔던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행사참여에 관한 입장등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41명이 방북불허 된 통일연대는 지방의 통일연대소속 참가자들에게 행사취소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사불참의사를 명확히 하고 민화협과 종단도 함께 가지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긴 시간의 논의 끝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통일연대는 불참을, 남북교류의 중단을 막고 올해 첫 민간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민화협과 종단은 행사에 참여를 결정했다.

출발, 가볍지 않은 금강산 행



전날 사실상 행사불참을 결정한 통일연대 지도부는 통일연대 소속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1시간 가량의 회의 끝에 통일연대는 ≪통일부의 41명에 대한 방북불허 결정은 민간통일운동 자체를 말살시키는 조치이자 사실상 민족공동행사를 결렬시킨 사태≫라며 전원 불참을 공식발표했다.

이어 민화협과, 종단, 통일연대의 대표자들은 함께 모여 상황보고를 가졌고, 민화협과 종단은 통일부의 방북불허조치에 대한 항의 내용이 담긴 성명발표와 함께 돌아올 때는 희망을 안고 오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강산행을 시작했다.

도착, 불안한 기대



26일 오후 7시 30분, 민화협.종단만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남측대표단을 태운 설봉호가 북한 장전항에 도착했다.

오는 도중 참가자들은 북측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명확한 북측의 입장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오후 8시 40분경 장전항에 도착한 남측 참가단은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등 북측실무단 5명의 영접을 받았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행사진행 여부에 대해 허혁필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심기가 안 좋은 것은 알지 않느냐≫며 대답을 피해 북측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먼저 와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남측 실무단에서 행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행사직전 남북공동으로 남한당국에 대한 ≪엄중항의≫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남측 참가단들은 2002년 민간교류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행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측은 영접을 나오기 직전까지도 행사진행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남측대표단들이 금강산에 도착해 있을 때에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행사무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남측 참가자들은 행사진행에 대한 불안한 기대를 가지며 온정각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긴장 속의 첫날밤

해금강 호텔에 여장을 푼 남측 실무단과 관계자들은 다음날 행사에 관련한 내용들을 협의했다.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본행사 직전에 남북공동으로 통일부의 방북불허에 대한 항의입장을 밝히는 것.

남과 북 모두 행사의 진행을 바라고 있었지만, 북은 행사발기단체인 통일연대의 방북불허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남은 북과 함께 남한당국에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을 걱정했다.

결국, 종단측의 반대로 공동으로 항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무산됐고, 청년대표 연설에서 항의의 내용을 첨가하는 것으로 남측의 논의가 정리됐다.

행사무산.. 허탈한 참가자들



27일 오전 민화협 김창수 정책실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해금강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창수 정책실장은 남측의 제안을 북측에 알렸으나 북측 준비위 관계자들에게서 대답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불안한 심정을 전했다.

본 행사 시작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진행여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상황은 곧 남쪽 참가단에 알려졌고, 오전 행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참가자들은 온정각으로 이동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기로 했다.

행사시간이 다가올수록 행사무산에 대한 불안함은 더욱 커졌고, 일부 대표단에서는 본 행사는 어렵더라도 합동연회와 부분별 행사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정오를 약간 넘긴 12시 30분경.

온정각을 찾아온 북측 실무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남측 실무자들의 손을 잡고 ≪고생하셨습니다≫ 는 말과 ≪행사무산≫이라는 북측의 결정을 담은 성명서를 전했다.

민화협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남북교류에 힘써온 인사들과 통일연대가 배제된 절름발이 대회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북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행사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행사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남측 참가단은 당혹감과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남측대표단은 행사무산에 대해 남한당국과 북한당국 모두의 책임을 묻는 입장발표를 하고 민화협과 종단은 각각 상황보고와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작년 5.1절 노동자 통일대회를 시작으로 8.15 민족통일대축전까지 진행된 대규모 남북민간교류가 처음으로 무산되게 되었다.

배웅, 남겨진 과제들

28일 오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남측 참가자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해금강으로 향했다.

전날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이 ≪어제 실무회담에서 허혁필 북측 민화협 부의장이 면구스럽지만, 환송하는 자리에 나오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 행사는 무산됐지만 남측 대표단에 대한 북측의 환송과 향후 남북교류에 관한 양측의 협의에 관심은 집중되었다.

오후 12시 50분경 허혁필, 한일선, 백문길, 리창덕, 김대봉 등 5명의 북측 실무단은 온정각에 도착, 남측 실무단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은 ≪행사무산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 있다≫며, ≪3월 중순에 실무회담을 갖자는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후 북측 실무단은 버스로 장전항으로 이동해 떠나는 남측 참가단을 배웅했고, 허혁필 북측 민화협 부회장은 남측 민화협, 종단의 대표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행사가 성사 안돼서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세관에서 허혁필 부회장은 남측 참가단을 향해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만납시다≫라고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배웅해 남북 민간교류의 끈은 완전히 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측 참가단은 오후 2시 30분경에 장전항을 출발했다.

2002년 대규모 민간교류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이렇게 외형상 행사가 무산된 채 끝났다.

올 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리랑축전과 6.15 2주년, 7.4 30주년, 8.15 57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 등의 대규모 민간교류를 앞둔 상태에서 이번 행사의 무산은 남북당국간, 통일부와 민간통일운동 단체와의 관계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이번 금강산 행사를 파탄시키려는 미국에 추종함으로써 6.15공동선언에서 민족 앞에 한 자기의 확약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남한당국의 ≪신의≫를 문제삼았다.

또, 이번 행사를 발기했던 통일연대는 통일부의 기준없는 방북불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통일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적용은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아리랑축전을 앞두고 있고, 남한 당국은 통일정책의 결정적 성과물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북민간교류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보여졌듯이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한쪽의 주장만을 내세울 때 통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통일연대에 대한 통일부의 기준없는 방북불허조치는 북한당국의 신뢰를 거둬들이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북한당국의 행사무산 결정은 결과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볍지 않은 발걸음을 한 민화협과 종단 등 남한의 민간통일운동단체에게 허탈함을 안겨주었다.

냉각되어있는 북미정세와 국내보수여론에 밀려 민족의 이익을 바라보지 못한 방북불허 결정과, 민족의 단합을 촉진하는 길에서 행사의 성사가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었다.

장동렬 기자
2002/03/04 통일뉴스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민족공동행사 무산의 가장 주된 책임은 미국과 공안세력 등 수구반통일세력에게 있다.

통일연대는 이번 민족공동모임 준비위원회 방북대표단에 대한 통일부의 대규모적인 방북불허에 대하여 항의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행사 불참결정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차후 남북민간교류가 부당한 간섭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이고도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우리 통일연대의 행사불참 결정이 전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민화협과 7대종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행사를 함께 준비했던 주체중 일부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 남북민간교류의 정당성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성사될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화협과 7대종단의 출발성명에서 ≪남북공동모임은 ≪남북민간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예단하는 정부의 방북불허조처에 의해 이미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불신의 눈에 가리워 화해와 평화의 새희망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합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민화협과 7대종단의 출발은 행사의 성사 자체가 대단히 불투명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모임을 성사시키려는 묘안을 찾는 애국적인 의지가 표현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감대가 이후 민간통일운동의 단결과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행사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계획적인 민족대단결 방해 책동에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를 계속 획책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고 우리민족의 대단결 운동을 저해하려는 의도이다. 부시의 대북 적대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공분이 전민족적으로 거대하게 확산되자, 이번 민족공동행사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고 남측내 민간통일운동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획책이 집요하게 진행된 것이다. 미국은 한나라당을 부추켜 원래 19일 예정되었던 민족공동행사를 연기하라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이번 대표단에 통일연대가 실질적으로 제외되도록 공안세력을 통하여 치열한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번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으며 두 번째로 남쪽 내 통일운동단체들의 분열을 도모하여, 있지도 않은 남남갈등이 있는 것처럼 소동을 벌리려 하였다.

또한 우리는 6 · 15공동선언을 백지화시키려는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책동과 이에 편승한 수구 반통일세력들의 분열적 의도를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동요한 김대중 정부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통일연대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준열하게 규탄한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더 이상의 후퇴와 동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통일연대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남북자주교류사업이 원만히 보장되는 조건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행사의 무산은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운동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대단결의 비약을 위한 위력한 계기이다.

이번 행사 무산을 통하여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마저도 정치적 탄압의 공세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 민족의 더욱 단결하여 그 어떠한 남북민간교류의 장애도 뚫고 나가는 민족적 힘이 형성될 것을 확신한다.

2002년 2월 27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방북불허 ≪엿장수 맘대로≫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및 6.15실현 결의대회



2일 오후 2시 50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주최한 ≪민간통일운동 선별 탄압 규탄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에서 열렸다.

강형구 통일연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연 6.15 공동선언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실현할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뗀 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면 통일부, 국정원, 검찰, 국방부가 6.15 정신에 맞춰야 하는데,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통일부는 선별 잣대로 민간교류 행사를 가로막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종린 의장은 ≪이 정부는 자기 상전인 미국의 뜻에 발맞춰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하고 ≪김 대통령이 자주권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 실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결의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승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정치연설을 통해 ≪정부가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며, 따라서 민간교류는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규제하는 원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규제하고 최소한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헌법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북 불허는 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승인과 불허에 대한 최소한의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기준은 대통령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국보법 위반자며, 국보법은 UN인권이사회에서도 4번이나 폐지를 권고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반박하고 ≪정부가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라는 기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엿장수 맘대로≫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에 간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등 균등.형평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승교 변호사는 ≪이미 이번 일은 끝났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에 대해 불허사유를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한다든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대규모 방북불허 소식을 듣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움에 꼬박 밤을 새웠다면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일부러 작년 8.15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 않기로 했고, 범민련의 경우 배당받은 1명마저 사양하는 등 조심했다≫며 행사 성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한상렬 상임대표는 ≪충격 속에서 마땅히 안가야 한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고육책으로 공동준비위원장이시자 공동단장이신 신창균 선생님을 상징적으로라도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안됐다≫며 ≪6.15를 파탄내려는 공안세력과 미국의 CIA(중앙정보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공작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6.15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6.15를 살림이 애국이고 6.15를 죽임이 매국이다≫고 규정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로써 엄혹한 역사를 뚫고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외에도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정치연설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인 법타 스님의 연설이 있었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박진석 회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는 노래패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철거가≫, ≪반이회창가≫ 등의 노래를 불러 앙콜을 받았고 ≪경의선 타고≫ 노래에 참가자 일부가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하는 등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대표는 ≪공동단장인 나도 못가게 했다≫며 ≪작년 8.15 행사는 놀러간 것이 아니라 민족대축전을 참가하러 갔는데 여기에 참가했다고 안 보낸다니 말도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아리랑도 가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미국과 반민족 수구세력을 무서워하니 가히 통탄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대규모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고 부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민간통일운동이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김치관 기자
2002/03/02 통일뉴스

북 제네바협정 파국 경고 논평

북미평화협정체결,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은 민족의 살길이다!



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 파국을 경고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와 자세로 협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협정의 역사적 이행 과정과 현재의 현실은 미국측이 처음부터 이를 진지하게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북미제네바협정 합의의 기본정신마저 저 버린 채, 북을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한반도에 냉전과 대결구도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침략주의에 북이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94년 북미제네바협정은 미국의 북 영변 핵시설 의혹 제기로 인해 한반도를 전쟁전야로까지 몰고 갔던 북미간 대결정세를 평화적인 해결단계로 전변시켰던 역사적 협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협정합의사항인 북 경제제재해제, 경수로2기 건설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오히려 경제제재강화, 대북고립압살 정책으로 북을 붕괴시키려하였으며, 2003년까지 건설하기로 하였던 경수로는 현재 2008년이 되어도 건설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은 전력시설이었던 원자력시설까지 포기하면서, 세계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단하였던 합의사항을 미국은 사실상 휴짓장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북은 미국에게 제네바협정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광명성 2호 발사 2003년까지 유예등을 약속하며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2000년 10.12북미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미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94년 북미제네바협정, 10.12 북미공동성명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간의 군사공조가 강화되고, 실전에 가까운 한미합동전쟁훈련의 계속,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 등으로 한반도를 전쟁전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미국의 협정이행의 불성실함에 대해 폭로하며, 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반도긴장정책 민족분열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가 밝힌바 북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7천만 전 민족과 전 세계 평화인류는 부시의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진의를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북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내정간섭, 연이어 계속되는 호전적인 발언, 특히 3월 말부터 예정되어있는 대규모 한미 군사 합동훈련 등등의 정책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조성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도이다. 그러므로 통일연대는 이후로도 계속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며 남한 전국민의 일치단결한 이 요구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 이것은 둘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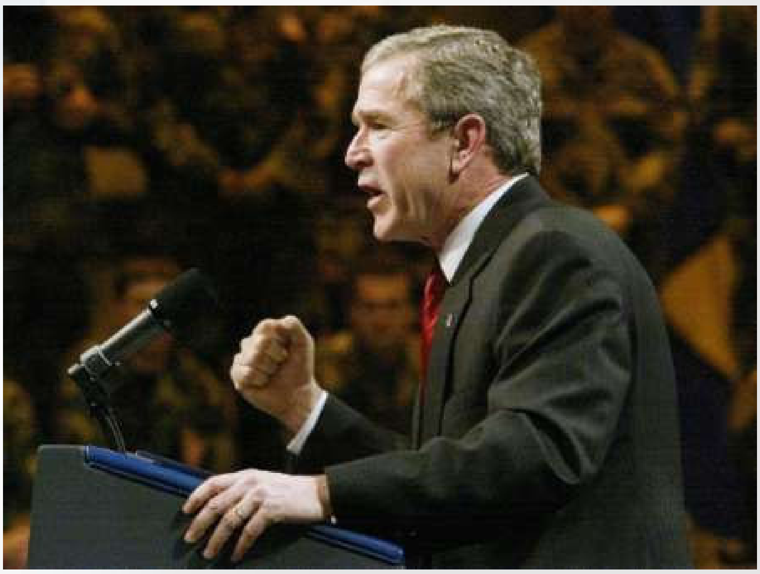
북-미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

남-북간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우리는 3월말 예정된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위의 두가지 주장을 7천만 민족의 힘으로 관철하여 나갈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2002. 3. 7.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반외세 민족자주 기치 더높이 들고 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2002)년 3월 1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는 빛나는 장들이 기록되여 있다.1919년 3.1인민봉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3.1인민봉기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온 겨레가 떨쳐 일어 나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전 인민적항쟁이였다. 그것은 간악한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조선인민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주성이 강하고 불굴의 기개를 지닌 인민이라는것을 남김없이 시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이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선두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봉기는 삽시에 전국각지로 번져 져 전 민족적인 반일봉기로 확대됨으로써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세계민족해방운동발전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의 애국적열의가 높고 투쟁정신이 강하다고 해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침략자들과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 주며 이끌어 줄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목 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성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우리 당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 주시고 일떠세워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며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현 시대의 가장 로련한 정치원로로, 백전백승의 무적의 령장으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 같은 칭송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권위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높이 떨쳐 지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장군님의 로선과 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군사적보루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하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기치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민족은 반외세,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투쟁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강토안에 침략군을 두고서는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 이것은 3.1인민봉기자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터친 절절한 웨침이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력사를 통해 체험한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강토안에 기여 든 침략군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또 누가 몰아 내주지도 않는다. 남조선인민들모두가 투철한 자주의식을 가지고 반외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 미제침략자들은 배겨 내지 못할것이며 제 소굴로 쫓겨 가고야 말것이다. 최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 지고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여 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온 겨레는 이 땅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군국주의,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강토안에서 침략군을 몰아 낼수도 없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적발전도 이룩해 나갈수 없다. 남조선의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같은 극우익보수세력들과 호전광들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 일신의 부귀영달과 권력욕을 추구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사대매국노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전에 이런 민족반역자들에게 정치적사형을 선고한것만큼 더욱 분연히 떨쳐 일어 나 반통일사대매국노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정신에 배치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 막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과 같은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온 민족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선언이고 자주통일의 기치인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길이 있으며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온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의 기치,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호전분자들과 분렬주의세력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엄중한 장애에 부닺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절대로 비관을 모르며 통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고 우리의 미래는 락관적이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할것이다.



여야의원 ≪친일 708명≫ 명단발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2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진상규명 법률을 제안키로 하면서 과거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친일행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발표경위 = 여야 의원들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이 모임과 광복회가 명단 공개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한지 반년여에 걸친 작업의 산물이다.

지난 9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광복회측은 일제관보 등을 뒤져 기초자료를 만들고 수차례 심의회의를 열어 명단을 작성, 올 2월 22일 을사오적, 정미7적, 일진회, 한일합방,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의원, 도지사, 고등형사, 판.검사, 밀정, 친일단체 관련자 등의 명단 692명을 최종 확정, 광복회보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한일합방 협력자인 이완용을 비롯, 서정주, 이광수, 최남선, 김동환, 주요한 등 문화계의 유명인사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광복회측은 일부 인사의 경우 친일행적 단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명단공개시 파문 등을 고려해 작곡가 현제명, 여성박사1호 김활란 등 17명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미룬채 민족정기 국회의원 모임의 심의 대상으로 넘겼다.

이 모임은 27일 저녁 회의를 통해 ≪김인승≫의 경우 1890년대 친일행적으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나머지 16명은 ≪친일행적이 명백하다≫고 판단, 발표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고 김희선 의원측은 전했다.

◇16명 심의결과 = 이 모임은 200여쪽에 달하는 발표자료에서 ≪고황경(高凰京)은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선 여성사회학자≫로 일본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교육하는데 앞장서 왔고, 김활란(金活蘭)은 ≪친일의 길을 걸은 여성지도자의 대명사≫로 이화여전과 이화교육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총후보국을 내조한다≫는 애국자녀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또 ≪사슴≫의 시인 모윤숙(毛允淑)은 임전대책 강연 등에서 ≪일본여성의 갈길≫을 부르짖었고, 여성계몽운동가로 알려진 박인덕(朴仁德)은 매일신보 등을 통해 친일선동 글들을 발표했으며, 덕성여자실업학교장을 지낸 송금선(宋今璇)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강사로 활동했고, 경성가정여숙 창립자인 황신덕(黃信德)은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교육자≫로 평가했다.

이들 여성 6명은 40년대를 전후해 임전대책협의회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강사로 맹활약했으며, 각계에 친일 글을 발표해온 것이 공통적이라는게 모임의 분석이다.

문화예술계 인사로서 화가 김은호(金殷鎬)는 ≪금채봉납도≫를 미나미 총독에게 증정했고, 심형구(沈亨求)는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으로 현제명(玄濟明)은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로, 민족음악의 대명사격인 ≪봉선화≫의 작곡가 홍난파(洪蘭坡)는 최남선 작사 ≪정의의 개가≫에 곡을 부쳐 친일가요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음악활동을 했고, 이능화(李能和)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로, 정만조(鄭萬朝)는 ≪친일유림의 거두≫라고 자료는 밝혔다.

자료는 특히 ≪방응모(方應謨) 조선일보 창설자와 김성수(金性洙) 동아일보 창설자, 장덕수(張德秀) 동아일보 창간당시 주간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의미와 논란 = 3.1절을 하루 앞둔 이번 발표는 국회 연구모임 차원이긴 하지만 해방이후 첫 현역국회의원들의 친일명단 종합발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희선 의원은 ≪나치에 부역,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색출, 처벌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과거사 청산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을 뿐아니라 침략국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유럽국가들이 공존공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명단에 포함된 인사의 직계가족들이 ≪일제하에서 강요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는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명단 발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단에는 현역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부친(최준집)이 1936-40년 당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향후 계획 및 참여의원 =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명단 가운데 중복자가 있고 반드시 포함돼야 할 인물들이 누락돼 있는 등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 각종 질의과정에서 이들 명단을 거명함으로써 국회 속기록에 이름을 남긴 뒤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상규명위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500원 주화에 독립애국지사의 초상을 문양으로 채택하는 사업,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독립군 따라 대행진≫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의원회관 대강당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김희선 김태홍 송영길 정장선 김경천 전갑길 이호웅 배기선 김성호 임종석 이종걸 의원, 한나라당 서상섭 김원웅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고, 발표자 명단에는 민주당 박상희 설송웅 설 훈 신기남 심재권 원유철 이상수 이재정 이호웅 최용규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김홍신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현재 기자
2002/03/01 연합뉴스

조선·동아의 후안무치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 한국의 대표신문이라며 스스로 민족지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역사왜곡과 후안무치가 점입가경이다.

먼저 3월 5일로 창간 82주년을 맞은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708명≫ 명단에 ≪언론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정책의 하수인≫으로 포함된 방응모 전 사장을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가≫(5일자 14면)라며 민족지사로 추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가 82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5일자 ≪계초 방응모와 민족지사들-≪내 사업은 민족의 훗날을 위한 일≫≫은 1884년 방응모의 출생부터 1920년대 후반 광산재벌로 성장한 이후 1932년 조만식의 권유에 의해 조선일보를 인수하는 과정, 광복후 백범 김구와의 인연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 옆에는 ≪만해와 계초의 각별한 우정≫을 다룬 상자기사를 싣고 방응모가 만해 한용운에게 바친 존경과 헌사, 우정을 그렸다.

방응모 ≪한일합방은 구국의 결단≫

방응모가 본격적으로 친일활동을 시작한 계기로 알려진 1935년 친일잡지 조광 창간과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발기인으로 참여, 1943년 출전학도 격려대회 개최 등의 이후 행적은 조선일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 기사의 편향과 왜곡 실상이 이러한데도 6일자 ≪정도언론의 길≫이라는 기획기사는 시모어 토핑 미 퓰리처상 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제목을 ≪뉴스 왜곡, 편향 보도하면 독자들이 외면≫이라고 뽑고 있다. 이만저만한 후안무치가 아니다.

방응모가 1935년 창간해 사장으로 취임한 친일잡지 조광에 실은 글 하나만 보자. ≪시정 31주년≫이란 제목의 권두언에서 방응모는 ≪회고하건대 지금으로부터 만 31년 전 동아의 정국은 실로 난마와 같이 흩어져 구한국의 운명이 또한 위급존망지추에 있었다. 이때 명치 43년(1910년) 8월 29일 일한 양국은 드디어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합병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조선 역대총독은 선정(善政)을 하여 금일과 같이 경제, 산업, 교육, 등 일반문화 향상에 자(資)한 바 컸다≫며 국치인 한일합방을 구국의 결단이라 칭송하고 역대 조선총독의 탄압을 선정이라고 미화했다.

조선일보가 편향된 정보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친일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5일자 창간특집 ≪조선일보의 정도≫란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의 정도는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이런 정도의 정신으로 2020년 창간 100주년의 영예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섬뜩한 말이다. 과거 친일행적과 독재권력에의 굴종, 정치권력과의 타협 등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단절없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선일보의 태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했더라면 수많은 독자가 지금 우리를 외면했을 것≫이라는 태도는 ≪친일이든 친미든, 친독재든 독자가 많으면 최고 아니냐≫는 오만이다. 사실 독자가 많으니 정론이라는 말은 대중지만이 난립하는 한국신문의 특수상황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조선일보 변용식 편집국장은 지난해 6월 1일 취임사에서 기자들에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려야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된다는 생각으로 신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의 오만과 편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견해, 다른 접근 방식을 결코 사악하게 보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다.

조선일보의 반성은 겉치레성 협박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겉치레지만 반성을 한 적도 있긴 하다. 5공 언론대학살 관련 청문회가 한창이던 1988년 11월 25일자 ≪청문회를 본 우리의 다짐≫이란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는 지난 세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기사의 자주적 선택과 편집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다≫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의에 동승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반성은 ≪다만 우리에 대한 질타가 조선일보의 거듭 태어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궤멸을 겨냥한 악의적이고 음모적인 것일 때는 조선일보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되 다 함께 각성해야 할 세력들의 모함과 중상에는 결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초점을 흐린다.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이뤄진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 가득찬 협박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설이 게재되는 과정 또한 흥미롭다. 이틀전인 23일 ≪청문회를 본 우리의 입장≫이란 사설에 대해 조선일보 노조가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만 담았을 뿐 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항의하자 발행인측이 노조측과 합의해 나온 사설이 25일자다. 또 25일자 초판 사설에는 ≪조선일보는 반성과 결의속에 그 되찾은 부끄러움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는데 최종판에 가서는 ≪조선일보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바꿨다.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언론사상사를 가르치는 김유원 교수(서경대)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가 펴내는 언론전문 계간지)에 실린 ≪민족지 논쟁의 실상≫이란 글에서 ≪조선일보가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피해의식은 대단한 모양≫이라며 ≪분명한 것은 조선일보를 궤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선일보의 도덕성 결여일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 크다≫

창업주 김성수가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동아일보의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 또한 조선일보와 ≪오십보백보≫다. 오는 4월 1일 창간 82주년을 맞는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 친일파 명단 발표

이후 ≪친일파 명단에 추가된 16명은 정치적 이유로 추가된 것≫이라는 논지를 펴며 광복회가 선정한 692명외의 16명에 대해서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학계 자문위원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식으로 친일잔재 청산이란 본질을 흐리고 있다.

동아일보의 태도는 지난 2일자 ≪누가 친일파인가≫라는 사설에 잘 드러난다. 시작부터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일부 진보성향 국회의원들이 임의로 만든 모임≫으로 규정하고 친일청산작업은 ≪국회의원 몇몇이 모여, 그것도 엄연한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단정하고 규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변한다.

동아일보는 결론으로 ≪≪민족정기 모임≫이 아무리 3.1절을 계기로 삼았다고 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급히 발표를 한 데는 무슨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난데없는 의혹을 제기한 후 ≪일부 인사들의 편견이나 어떤 감정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친일 반민족자≫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도리어 어려운 용기를 내어 친일잔재 청산을 들고나온 국회의원들을 나무란다.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친일행적과 공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28일 명단 발표 때도 명단포함여부에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 또한 김성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민족정기 모임은 ≪그러나 일제 말기 그의 친일 활동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그의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1891년 태어난 김성수는 이번 명단발표 때 ≪민족지도자로 둔갑한 친일자본가≫란 평가를 받았다. 김성수가 쓴 글중 대표적인 친일기고로 평가받는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의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정신을 찬양하라≫는 논설을 보자.

≪작년 5월 8일 돌연히 발표된 조선의 징병령 실시의 쾌보는 실로 반도 2천5백만 동포의 일대 감격이며 일대 영광이라. 당시 전역을 통하여 선풍같이 일어나는 환희야말로 무엇에 비유할 바가 없었으며 오등 반도 청년을 상대로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특히 일단의 감회가 심절하였던 바이다.≫

김성수는 이외에도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1943년 11월 7일자 매일신보) 등의 논설을 통해 반도 청년들의 참전을 부추겼고 그가 운영하던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조선인 청년학생들을 학병으로 내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김성수의 일제 말기 친일행적은 해방 이후 그가 이승만과 더불어 정부 수립의 한 축을 이루었던 한국민주당을 이끌고 있음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반성 단절없는 자칭 민족지 동아, 조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 강점기에 나름대로 항일논조를 보였으며 항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비하하려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역사의 공과 과를 정확히 기록해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친일잔재에 대한 엄격한 청산작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자는 것일 뿐일진대 무슨 정치적 음모가 개입됐다는 것인지 두 신문의 음모론이 난데없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신문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이용해 ≪과≫는 외면한 채 ≪공≫만 내세우며 독자들을 우롱하면서도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정론지≫이며 ≪민족지≫라고 내세우는 데 있다.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역사에 남기자는 것인데 공과를 가려 공이 있으니 과는 감싸주자는 주장은 두 신문이 평상시 지면을 통해 보여주는 태도와도 어긋난다.

프랑스 드골의 친나치 언론인 대숙청

동아, 조선 등 언론의 친일잔재 청산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와 대비되는 예로 흔히 인용되는 게 프랑스의 나치협력 언론에 대한 가혹한 응징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중 나치독일에 점령된 조국이 해방되자 대대적인 나치협력자 숙청작업을 벌였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드골은 1백50만-2백만명의 나치협력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99만여명을 체포했으며 15만여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결과 7천40여명이 사형선고를, 2천7백22명이 종신강제노동형을, 1만4백34명이 유기강제노동형을, 2만6천5명29명이 유기징역형을, 10만여명의 공직자들이 파면 조기퇴직 감봉조치 등을, 7만여명이 국적박탈 등의 응징을 당했다.

언론인들은 수적으로는 적은 1백여명에 불과했으나 제일 먼저 재판정에 서 가장 가혹한 응징을 받았다고 한다. 주섭일 내일신문 주필 겸 고문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펴낸 ≪언론개혁≫(계간지 2001년 봄 창간호)에 기고한 ≪한국언론의 반면교사 서유럽언론≫이란 글은 당시 드골의 나치협력 프랑스 언론인에 대한 숙청과정을 일부 묘사하고 있다.

일부만 발췌해 살펴보면 ≪일간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쥬 쉬아레즈는 공산주의로부터 프랑스를 지켜줄 나라는 나치독일뿐이며 히틀러가 절세의 영웅이라고 찬양했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형선고를 받아 총살당했다. 히틀러의 나팔수로서 라디오 파리의 해설가로 유명했던 장 에롤 파키와 일간 ≪새 시대≫ 발행인 장 뤼세르도 사형선고를 받아 총살됐고, 일간정치신문 ≪내가 도처에 있다≫의 편집국장이며 천재작가로 문명을 날린 로베르 브라지야크도 총살됐다. 특히 그는 파리고등사범을 나온 천재로 이를 아깝게 여긴 저항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과 ≪전투≫지 주필-노벨상 수상작가-알베르 카뮈 등이 연명으로 드골에게 구명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드골이 사형에 서명한 에피소드를 남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칼럼니스트 폴 샤크, 나치 선전방송 내 프랑스어 방송 책임자 폴 페르돈네 등이 총살됐고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종신강제노동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드골은 또 9백여개의 신문 잡지 가운데 6백49개사를 폐간하거나 재산을 몰수했다.

주 주필은 ≪점령기간내에 자진폐간했거나, 발행했지만 경영진과 기자들이 저항운동에 비밀리에 가담했던 ≪르 피가로≫와 ≪라 크르와≫ 공산당기관지 ≪뤼마니테≫ 등 3개지만이 언론숙청에서 살아남았다≫며 ≪세계의 유력지 ≪르 몽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신문을 만들겠다는 드골의 의사가 직접 반영돼 창간됐으며 반나치 운동을 지하에서 펼친 ≪콩바≫ 등이 친나치 언론이 사라진 폐허의 빈 자리를 모두 메웠다≫고 설명했다.

주 주필은 ≪오늘날 프랑스 언론이 우파이든 좌파이든 모두 자유, 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골의 나치협력 언론의 처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가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나름대로 자주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과 반성이 전제됐다. 반성하지 않는 한국의 자칭 민족지 동아, 조선일보가 본받아야 할 또다른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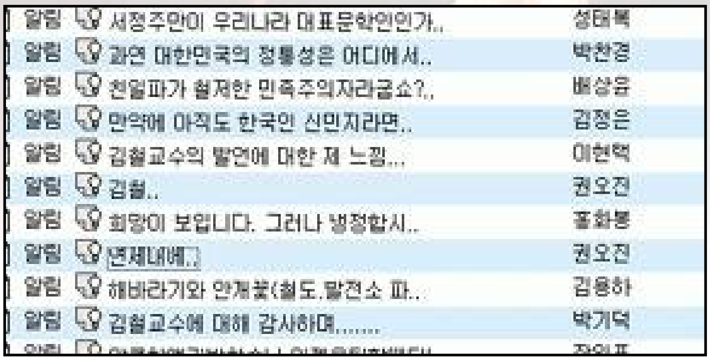
바로 일본의 아사히신문이다. 아사히는 패전 직후인 1945년 11월 7일 1면에 ≪선언≫이라는 사고를 싣고 ≪진실의 보도, 엄정한 비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패전을 맞게 됨으로써 국민을 무지 속에 방치한 잘못을 만천하에 사죄한다≫는 요지의 반성을 했다.

자칭 민족지라는 동아 · 조선일보가 패전국 일본의 신문만큼도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언론, 나아가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할 것인가.

이영태 기자
2002/03/06 프레시안

네티즌 대부분 ≪친일청산≫하자

100분토론 ≪친일청산, 지나친 민족주의인가?≫ 네티즌 반응



알림	서정주만이 우리나라 대표문학인인가..	성태복
알림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박찬경
알림	친일파가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굽쇼?..	배상음
알림	만약에 아직도 한국인 신민지라면..	김정은
알림	김철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 느낌...	이현택
알림	김철..	권오진
알림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합시..	홍화봉
알림	연세대에..	권오진
알림	해바라기와 안개꽃(철도,발전소 파..	김용하
알림	김철교수에 대해 감사하며.......	박기덕

≪≪민족에게 등쳐먹은 놈은 자자손손 잘살고 민족을 위해 몸바친 놈은 패가망신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질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친일청산, 지나친 민족주의인가?≫ 란 100분토론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70페이지 가량의 의견을 올리는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친일청산은 시대적 요구라고 일축하며 ≪친일파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했던 김철(연세대 · 국문과) 교수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쇄도했다.

지난 28일(수)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공개심의를 통해 확정지은 708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발표를 전해들은 조선 · 동아 등 수구언론과 보수인사들은 광복회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입을 빌어 ≪감정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번이 ≪시작≫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들은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바라며 출발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처단 특별위원회)가 친일세력들의 치열한 저항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연대에 의해 좌절 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찌 독일 부역에 동원된 프랑스 지식인과 작가, 사업가들이 종전 후 ≪프랑스 정신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는 사례를 들며 프랑스처럼 진정한 청산이 이뤄지길 고대했다.

≪친일명단에 오른 사람은 전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며 ≪전범국인 일본과 일본인들을 시대적 흐름이라며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친일파 후손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과의 청산과제, 위안부문제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

항상 지적되는 토론 패널에 대한 의견도 만만찮다.

안병욱(카톨릭대 · 국사학)교수와 김원웅 한나라당의원이 찬성쪽 패널로 나왔고 반대쪽 의견으로는 김유혁(단국대)명예교수와 김철(연세대 · 국문과)교수가 참여했다. 안병욱 교수의 논리정리하고 군더더기 없는 발언에 대한 찬사와 이와 대조되는 김철교수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일었다.

현재 100분토론 게시판에는 ≪김철교수 사과하라≫란 말부터 시작해 ≪교수직을 떠라≫는 등 자격시비에 대한 의견이 쇄도하는 가운데 김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난무하고 있다.

김교수는 친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규정부터 새롭게 해야한다는 등 논외적인 주장을 하다 사회자인 손석희씨가 미당 서정주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말해달라고 주문하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한다≫며 발언을 기피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친일파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이자, 세계주의자≫라는 김 교수의 마지막 발언, 이로써 연세대 게시판은 지금 실망스럽다는 제자들의 글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그런 상식이하의 인간이 교수직을 재직하고 있는지 나는 연세학우에게 묻고 싶다.

그런 반민족적 친일 비호인을 스승으로 두고 학교 다닌다는 것은 한국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차라리 자퇴를 함보다 못하다≫ handsome (연세인)

≪민족연세대학교에서 이런 교수(김철)는 추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예전에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연세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국문과 김철교수는 연세대의 한 단면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hansori

백영순 기자
2002/03/05 유뉴스



친일파와 친미파



일제의 패전 이후 친일파가 변신 · 재기한 비결은 친미 · 반공이었다. ≪친미 · 반공≫을 앞세운 친일파는 이승만정권이 수립된 뒤에 ≪친독재≫와 자연스럽게 야합하면서 그 실세를 확고히 뿌리내렸다. 한국의 모순과 부조리, 특히 폭정과 부패구조의 수수께끼를 푸는 ≪키워드≫가 친일파 문제와 ≪사대주의적 친미파≫ 문제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친일파의 친미파 변신이 초래한 사태의 특성은 우호를 뜻하는 ≪친미≫ 개념을 실종시켜 버린 점이다. 그 친미는 외교의 상도를 일탈한 맹목적 · 종속적 대미관계이고 이성적 판단을 초월한 감상적인 색맹의 친미다.

근세에 한미관계의 시발사건은 1866년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의 대동강 진입사태다. 1871년 미국 함대의 강화도 무력진공과 공방전은 조선이 최초로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과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후 전후복구와 중국시장 진출로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대책을 일본에게 미루어 일제의 1875년 운양호 원정을 지원하는 데 만족했다.

일제의 함포외교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고, 1882년 중국의 주선으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당시 왕실과 양반지배층은 미국쪽에 호감을 품고 막연한 기대도 했다. 그러나 조선의 외교고문이 된 미국인 스티븐슨은 일제의 이익을 적극 도모해 이런 기대를 저버렸고, 미국 정부도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제의 조선강점, 식민지화를 양해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일제에게 강탈되었을 때 조선에서 제일 먼저 철수한 외국사절도 미국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친미파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조선독립을 청원하고 다녔다.

2차대전으로 미 · 일간 정세가 바뀌어 포츠담선언에서 노예적 처지에 있는 조선 인민의 해방을 약속하였지만, 미국은 한국의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일제 패전 후에는 오히려 미군정 당국이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또 1946년 개시한 일본전범재판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조선에 대한 침략 문제를 제외시켰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 체결 당시에도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한국문제에 대한 처리조항을 일본과 논의해 조약에 규정했다. 역대 한국정부는 미국의 상궤를 일탈한 이런 처사에 대해 변변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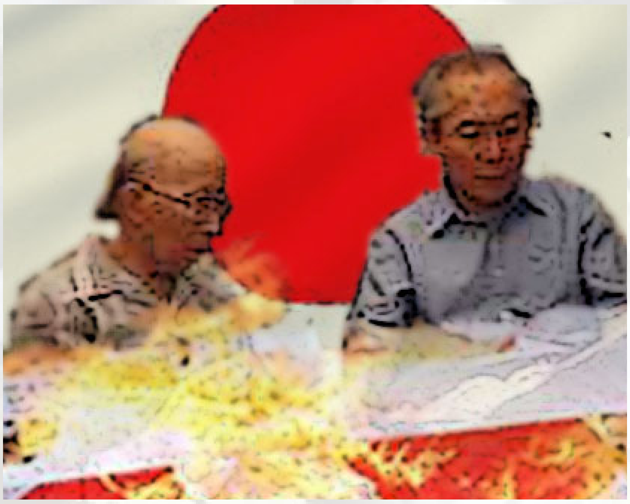
골수의 친일파 박정희가 집권한 뒤에는 1965년 존슨의 베트남참전 요구와 값비싼 비행기 등 무기구매요구를 흔쾌하게 승락해서, 오히려 미국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박정희 피살후에 미국은 시장개방 등 사정없는 통상압력을 가해 한국을 발가벗겼고, 원자력발전소 설치와 무기판매로 짭잘한 재미를 봤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방장관을 무기 세일즈맨으로 한국에 보내서 공연히 압박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는 한술 더떠 북에 대한 ≪악의 축≫ 선언과 대북 전쟁가능성 발언같이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뭉개버리는 거동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제 한미 관계의 긴 역사를 되살피면서 미국을 ≪혈맹≫이라고 해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일은 잘못임을 재확인하자. 따라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따지면 무조건 반미로 간주해, 곧 용공 · 좌경의 낙인을 찍는 매카시즘의 추태는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더욱이 민족문제를 정쟁도구로 악용하는 친일파나 그 아류인 ≪사대주의적 친미파≫의 망동은 그 실체를 엄중하게 폭로 · 규탄해야 한다. 여기에 친일 전과자인 일부 언론의 ≪안보상업주의≫가 반공매카시즘에 편승해 여론을 그르치는 짓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민족생존의 문제를 정쟁도구로 악용하는 매국노들은 21세기의 이완용이다.

한상범 동국대 교수 · 민족문제연구소장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경축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고 2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위원회들은 준엄한 지하투쟁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2.16경축보고회들을 진행하였다.

보고회장들에는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사진이 정중히 모셔지고 장군님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었다.

경축보고회들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1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축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것은 5천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행운이고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은 일대 역사적 사변이였다면서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장군님의 탄신절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는 민족적 영광과 행복에 대해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고 반미대전의 포화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천출위인의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시고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혁명활동역사를 광휘로운 금문자로 수놓아오신 사상과 영도의 천재이시라고 지적하고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시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발악적인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특출한 영도실력과 백승의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시고 새 세기 이북의 강성대국건설과 민족적 대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었다고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이 구현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시대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대업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견결한 혁명적 원칙성과 무비의 담력, 비범한 지략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역사반동의 역풍을 쳐몰아내고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라면서 장군님 계셔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새 세기

는 영광찬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강조하였다.

각 도, 시위원회들에서 진행된 경축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60성상의 역사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중의 행복을 위해 온갖 노고와 헌신의 대장정을 걸으시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영도자의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일치하게 지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필승불패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줄기차게 매진할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축보고회들에서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과 편지, 맹세문들이 채택되었다.

한편 한민전 각급 조직들과 애국운동단체들에서는 경축행사기간에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 비디오시청, 도서 및 사진전, 노래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자체 실정에 걸맞게 조직진행하였다.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60성상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 주체위업의 영원한 태양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장군님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순결의 동지, 신념의 동지로 되며 15공동선언실현의 선봉장, 결사관철의 투사가 될 자기들의 굳은 결의를 토로하였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애국운동단체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노정을 담은 비디오시청과 장군님의 도서 및 사진전을 통해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터득하였다.

한민전 중앙위원회와 각급 조직들에서는 평양에서 거행된 2.16경축 중앙보고대회의 실황을 녹화하여 시청하는 모임들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파쇼의 탄압이 앞을 가로막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분의 이민위천의 인덕정치, 특히 장군님의 선군영도 7년간의 혁명실록을 부각시켜 광범위하게 소개선전함으로써 이 땅에 굽이치는 **김정일**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조직별, 단위별로 다채롭게 진행된 경축 노래모임들에서는 축원의 마음안고 활짝 피운 진귀한 **김정일**화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속에 **김정일**장군의 노래 , 태양가 ,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 우리의 마음 노을로 피리 , **김정일**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따르렵니다 등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충성의 찬가들이 힘있게 울려퍼졌다.

또한 구국의 소리 방송과 구국전선 인터넷 에서는 2.16경축 특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여 각계 민중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한층 드높여주었다.

한민전 중앙대표부에서는 뜻깊은 2월 명절에 즈음하여 14일 평양에서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남녘의 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으로 숨쉬고 투쟁하며 장군님의 기상과 담력으로 과감히 전진하여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올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철석의 의지와 굳은 맹약을 강조하였다.

참으로 한민전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영원히 주체의 태양이 밝히는 자주의 궤도따라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향해 더욱 과감히 노도쳐갈 확고한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주체91 (2002)년 3월 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 고발장 - 주체91(2002)년 2월 26일~28일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이회창과 같은 악한이 절대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해선 안된다며 반이회창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회창역적의 만고대죄를 폭로한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의 고발장을 임현아씨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회창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친미 사대매국역적이다

이회창은 친일역적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 법대의 전신)를 졸업하고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에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탄압에서 세운 특출한 공로로 1940년에는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담당 검사서기로 승진, 활약했다.

그는 1945년 8.15광복전 시기에 서울지방검찰청까지 올라가며 일제에 멸사봉공한 특등친일매국노였다. 이런 애비로부터 외세의존, 사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이회창은 어린 시기에 애비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만세! 를 부르며 사진을 찍는 과정 등을 통해 친일사상이 골수에 꽉 찼다.

그는 애비가 법관의 감투를 쓰고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처형하고 일제에 충성하는데서 악명을 떨쳤던 것처럼 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나선 의로운 인사들에게 온갖 악형을 다 들씌웠다. 하기에 그는 지금도 민족을 반역하는 친미사대매국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회창은 얼마전 미국을 행각해서 상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을 걸고 변한 것이 없다느니 핵개발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애걸하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배치시키고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맹약했으며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회창의 민족반역적이고 친미사대매국적인 망발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7월 6일 국회대표연설에서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떠들었고 2001년 1월 19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리고 2001년 3월 12일 총재단회의에서는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는 2001년 8월 10일 그 무슨 시국강연회라는데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나라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며 우리 민중의 정당한 반미투쟁을 무분별한 반미운동으로 모독했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이미 처단됐어야 할 친일역적의 아들로써 미국에 개질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에게 섬겨바치려는 극악한 친일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내외가 지지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공동선언이 국민들에게 안보결여의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반대한데 이어 그로부터 며칠뒤인 6월 19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는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줘 들뜨게 했을 뿐이다, 긴장완화와 평화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뭐다 하면서 악랄하게 헐뜯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자 남북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발악했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일방적인 퍼주기라느니 한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신뢰와 화합의 마당에 재를 뿌렸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행길에 깡패들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망동을 부렸으며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복원공사 기공식때에는 뒷골방에 앉아서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비명을 올렸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을 떠들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해 나섰다. 그것도 부족해 이회창은 200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진행된 총재단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6.15공동선언과 관련해 밀약설, 사전합의설을 날조하면서 악랄하게 비방중상했고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이른바 돌출사건을 만들어가지고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신매카시즘소동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의 악랄한 훼방꾼이고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따라서 이회창을 그대로 둬두면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다.

3. 이회창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를 펴는 호전광이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겨레의 통일열기가 비상히 높아지자 이회창은 2000년 6월 18일 북에 대량살상무기와 핵과 미사일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냉전논리를 주장했고 그로부터 며칠후인 6월 28일에는 직접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며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는 망언을 거리낌없이 했다.

그는 2000년 12월 15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앞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적 구조니 적화통일이니 뭐니 하며 북에 대한 주적론을 떠들었고 2001년에는 정초부터 주적론을 연발하면서 북은 여전히 국가안

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떠들며 대북적대시감정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가하면 2001년 4월 12일에는 무력도발포기는 북이 말로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의 군사력감축과 휴전선일대의 상용무기후방배치 등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방적 양보불가론, 북한불변론, 과거사사죄론을 들고나오며 첨예한 남북대결과 제2의 냉전을 불러왔다. 심지어 이북 무역선의 동해통과와 관련해 2001년 6월 한달동안에만도 강력대응과 무력사용을 떠들며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렸다. 이것은 이회창이 남북관계를 첨예한 대결관계로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기 위해 광분하는 호전광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둬두면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다시 터질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로 될수밖에 없다.

4. 이회창은 형벌을 받아야할 살인범죄자이다

이회창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에 법관의 감투를 쓰고 애국민중을 학살, 처형하는데 직접 가담했다.

1961년 7월 12일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박정희가 지적한 혁명재판부의 심판관으로 임명된 이회창은 7월 29일 이른바 민족일보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들에게 부당한 죄를 들씌워 중형을 선고했고 조용수사장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진보적 언론인이였던 조용수씨에 대한 사형판결은 항소심 선거공판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같은해 12월 21일 교수형으로 집행됐다. 당시 최대 언론말살사건이였던 민족일보사건의 살인범죄자는 바로 이회창이였다.

1982년 3월 18일에 있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해 이회창은 대법원 대법관으로써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등 관련자 15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

1982년 2월 애국적 민주단체로 알려진 자유회관련자들에 대한 재상고심확정발표때 대법원판사로 직접 참여한 이회창은 무고한 교인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중형을 들씌워 모진 고문과 박해를 감행했다. 그때의 고문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지금도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역을 자행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애국민중을 학살처형하는데 가담한 살인범죄자가 아직도 정계에서 돌아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우리 민중은 죄아닌 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파쇼와 독재의 난무장으로 되고 말 것이다.

5. 이회창은 이 땅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시대의 역행자이다

이회창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시기상조론을 운운하면서 악법도 법이라며 이 땅의 민주화를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기에 그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을 찬미하면서 파쇼광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회창은 1997년 신한국당경선대회에서 박정희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대통령으로, 피의 권좌로 알려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노태우를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으로 치켜올렸고 그것도 모자라 나는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지금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떠벌임으로써 독재를 미화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극우보수분자로써의 나상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회창은 지금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를 위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모독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하며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다. 그는 2001년 2월 6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에 대한 탄압이니 민주주의위기가 극에 달한 것이니 뭐니하며 얼빠진 교시까지 만들어냈다.

족벌언론, 특정언론의 탈세와 부정비리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회창은 심복들을 동원해 공정한 언론개혁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홍위병, 관변단체로 매도했고 심지어 언론사 세무조사를 북과 연결시켜 남북대결을 고취하는데 악용하면서까지 민주화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발광했다.

그가 2001년 7월 4일 무슨 언론탄압규탄대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남북협잡설이니 사전정비작업이니 하고 떠들었으니 이회창이야말로 국민의 초보적인 민주화요구마저 거세말살하려는 시대의 반역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지난 군사독재시기보다 더한 민주의 동토대, 파쇼의 난무장, 암흑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6. 이회창은 부정비리와 부정축재를 일삼는 썩은 개쪽이다

이회창은 1996년 총선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83명의 같은 패당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거액의 부정자금을 챙겼다.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도 일반사건을 다루면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라고 강박하면서 거액의 부정축재를 했는가하면 1995년말에는 이회창후원회를, 2001년 5월초부터는 경기고, 서울대출신들을 기본으로 국가혁신위원회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회창은 이렇게 부정축재한 돈 가운데 2억원을 들여 친일역적인 제 애비의 집을 복원하는데 탕진했다.

그는 얼마전 한나라당에 출입하면서 매문활동을 하는 기자들을 위해 생일파티를 조직하고 술놀이를 벌인 후에 그들에게 돈봉투까지 나누어주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이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그의 뒤가 더 더럽다. 이제 내 입만 터지면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홀딱 발가진다. 라고 말한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회창은 청렴결백한 대쪽이 아니라 들추면 들출수록 부정부패의 악취만 풍기는 썩은 개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이 땅에 별의별 부정비리와 부정부패가 다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회창은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빨아들여 한국에서 제일가는 갑부로 될 것이다.

7. 이회창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잘하는 정치간상배이다

이회창은 지난 대선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국민적 요구에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의에 역행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난 16대 총선 당시 특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뒤집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회창은 국민을 배반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측근들을 배반하는데서도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지

금 한나라당에 있건 당을 떠났건 간에 일치하게 이회창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더 멀어지는 묘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회창은 길지않은 정치경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정적을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신의가 없고 배신을 식은죽먹기로 하는 그의 속성과 관련된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에서 자기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이모의원을 한나라당에서 쫓아내다시피 몰아냈다. 그때 활약했던 7인방이라는 핵심인물들도 이제는 밀려났거나 존재도 없다. 그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세번이나 크게 도움을 준 심복을 한나라당에서 제명했다.

1999년 여름 이회창의 7인방이였던 모의원은 이회창 옆에 있으면 다죽는다고 말했고 97년 대선때 이회창과 가까이 지냈던 3선의원은 그는 수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리없고 비정한 사람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가하면 지난 대선때 이회창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윤모씨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회창이 대권을 쥐는 것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사실과 증언을 보아도 이회창은 국민배반을 능사로 여기고 자기의 심복들도 헌신짝처럼 쉽게 차던지는 너절하고 추악한 정치간상배라는 것을 잘알수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은 이회창의 국민기만행위에 의해 더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8. 이회창은 민생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병자이다

이회창은 국민우선, 민생보장이라는 말을 곧잘 외우지만 그것은 민심을 낚아보기 위한 대권야심가의 기만극이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이 발표한 세재개편방향에는 민생과 관련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몇억원짜리 집의 양도소득세감면 등 가진 자들과 독점재벌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조항들만 있었다. 이회창은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동안이나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와 대여투쟁을 한답시고 거리시위만 했을뿐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과 관련한 산적된 법안들을 계속 방치해놓았다. 그는 오직 대권야망실현에만 집착하면서 사조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공작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00년 12월 14일자가 밝혔듯이 이회창은 예상되는 여당 대선후보와 여권핵심부의 비리, 저들에 대한 적대적 언론인의 비리 등 관련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심복들에게 지시했다.

언론부분에서는 언론인들을 적대그룹과 우호그룹으로 나누어 적대그룹에 대해서는 비리 등 문제점들을 폭로, 여론화하고 우호그룹은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이회창이 얼마나 대권욕에 환장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 1월 17일에 한 연두기자회견에서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권대권분리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당권과 대권을 자기 혼자 말고 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때가서 당권을 넘겨줄수 있다고 떠든 것을 보아도 잘알수 있다.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대통령병에 걸려 대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마구 날뛰는 그 오만한 작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민생은 더욱더 형언할수 없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9. 이회창은 지역감정과 씨족감정을 고취하면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사기협잡배이다

이회창은 1997년 5월 5일 한강 남원시민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황해도민의 날 행사에서 본인은 황해 서흥에서 태어났고 누님도 황해도 송화에서 출생했다면서 자기가 황해도 사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4월 29일 충남 예산에 가서는 예산은 16대조부터 자리를 잡았고 부친이 태어난 원적지라면서 자기가 충남사람이라고 설교했다.

그런가하면 같은해 7월 9일 대구지역 연설에서는 대구경북은 지난 40년동안 우리 경제부흥과 정치안정을 이끌어온 지역이라며 입에 침발린 소리를 했고 다음날인 7월 10일 광주연설에서는 광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느니 고향 갈다느니 뭐니 하며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2000년 8월 17일과 2001년 3월 1일 전주 이씨 종친모임에서 이회창은 전주 이씨가 국가를 경영한 집단으로 비록 왕조는 끝났지만 정신적 지반은 있다며 전주 이씨 역할론을 떠들었다.

2001년 8월에는 보름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충청지역을 찾아가 지역감정, 씨족감정을 고취했다.

이것은 이회창이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정치협잡군이고 지역갈등과 씨족갈등의 조장자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10. 이회창은 정치대안도 없는 정치낙제생이다

이회창은 1996년 총선 직전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개혁을 주장하는가 보수를 주장하는가라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개혁적 보수라고 말함으로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물론 자기의 심복들에서까지 신랄한 야유와 조소를 받았다.

그는 또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해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어느 명인의 말을 자기 말처럼 주워넘기다가 톡톡히 망신까지 당했다.

이런 자에게 무슨 정치대안이 있겠는가.

한나라당 출신의 한 전직의원은 이회창은 여야 갈등 때마다 버티기만 했지 한번도 자기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당직을 지낸바 있는 그는 내가 있는 4년동안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정치적 대안과 이념적 지향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

항상 비판만 있었지 이회창이 자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에게서 실망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회창의 심복들속에서도 그는 참모조직을 어떻게 운용하고 조직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수 있다.

월간 조선 2000년 1월호는 이회창을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 총재, 국정에는 협조않고 정쟁만 일삼는 자, 국가경영비전이 없는 이회창 으로 낙인하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이 정치에 정자로 모르는 생판 무식쟁이이고 정치낙제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도 모르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지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각계 민중은 시대와 민족의 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이며 대권욕에 환장한 대통령병자인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반민주반통일 사대매국역적이 감히 대통령꿈을 꾸고 있으니 참으로 소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에게 한표가 아니라 인간으로써, 정치인으로써 매장해버리고야 말겁니다.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을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57호)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국체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동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가차없이 무찔러버리는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선전활동은 부득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격전쟁에 가장 적합한 선전선동수단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우리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붓대포≫를 발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된 후 거기에 출판소를 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 월간≫을 창간하였다.≫(**김일성** 주석, ≪세기와 더불어≫ 제 6권)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서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김정일**장군, 조선노동당의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에서 재인용)

통일여명 편집국이 그간 발표한 보도를 모아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을 발간합니다.

주체89(2000)년 12월에 창간된 월간 ≪통일여명≫이 어느덧 15회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 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도된 그 보도도 50회를 넘게 되었습니다.

50회가 넘는 통일여명편집국보도에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와 우리 편집국이 활동가동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대외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여명≫의 편집국명의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활동을 통일여명편집국보도로 총화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정세전망과 통일전선, 진보정당 등 민족민주대오가 풀어야 하는 당면한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주체적 견해를 명확히 피력함으로써 그 해결에 일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지난 활동에 대한 총화와 향후 투쟁전망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각지에 산개해 있는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견해와 입장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자신의 견해를 책임있게 발표함으로써 익명이 횡행하는 인터넷공간에서 예의와 질서를 수립하는데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공보, 통보, 예고, 논문, 정론, 일문일답, 호소문, 추천, 축하, 풍자 등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사업작풍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편집국보도는 초기에는 통보로 통일시켜 언급하다가 점차 공보, 통보로 분별하며 사용하였으며 33호부터는 보도앞부분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침과 당의 지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33호까지의 조회수(인터넷전국연합게시판) 합계 16758회, 평균 524회가 말해주듯 많은 동지들이 통일여명편집국보도를 열람하며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그간 ≪통일여명≫을 애독하고 그 보도에 지지를 보내준 여러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발간되는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은 통일여명편집국보도 1호에서 50호까지 순서대로 편집한 자료집으로서 동지들이 보도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향후 내용에서 더욱 충실하고 형식에서 더욱 참신한 보도를 내오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3월 1일
서울

≪반부시반미문헌집1≫을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 (편집국 보도 58호)

≪부시의 서울행각이 분명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2002 2 3)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시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그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릴 반미반부시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한민전 중앙위,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2002 2 13)

올해 초 ≪전쟁의 해≫를 선포한 호전광 부시는 지난 1월말 미의회에서 ≪악의 축≫망언을 해대더니 급기야 2월말에는 서울행각, 전쟁행각까지 벌이었습니다.
이에 한국변혁의 전위당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1.14), ≪한미전쟁공조책동을 성토함≫(1.24),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1.31),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2.3),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2.13)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제때 발표하며 민주애국세력의 반부시투쟁, 반전반미투쟁을 절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변혁사상 처음으로 603개 단체가 모여 부시방한반대 집회와 시위를 벌이게 되었으며 부시는 우리 민중의 강력한 규탄투쟁으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대규모 반부시반미투쟁이 이룩한 성과는 전위당의 과학적이고 적중한 투쟁호소와 이에 호응하여 일치단결한 애국민중의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애국적 민주세력의 목적의식적이고 강력한 대중투쟁이 없었다면 아무리 동계올림픽에서의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한들 오늘과 같이 반미정서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6.15 공동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이 놓여있습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7천만 겨레의 민족적 자부심은 비할 바 없이 커졌으며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민족자주, 평화통일의 기운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한편 우리 민족민주대오는 1, 2월의 반부시반미투쟁을 6.15공동선언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보다 광범한 애국민중을 동원하지 못한 부족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반부시반미투쟁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민주운동가들이 먼저 전위당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부시반미문헌집1≫은 지난 1, 2월에 발표된 전위당의 각종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서 동지들이 지난 투쟁을 총화하고 향후투쟁을 전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위당의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동지들에게 전달하려는 우리들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3월 1일
서울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1일~3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어요.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을 이룩해야할 책임이 다름아닌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어깨위에 지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 집안일을 남이 대신해줄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민족 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을 외세가 대신해줄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자신이 책임지고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 직접적 담당자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시기 우리가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무를 다해나가는데서 기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한 민족자주통일선언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남과 북의 우리 겨레가 바로 통일의 주인이며 그 누구도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겁니다.

민족자주통일을 근본핵,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합니다. 올해 통일투쟁의 성패는 바로 공동선언을 어떻게 고수하고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는 겁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것은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은 철회돼야하며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은 철폐돼야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입니다. 온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합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요인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임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동참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옵시다.

KNCC, 북 ≪아리랑 축전≫ 참관단 모집

개신교 진보세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의 참관단 모집에 나섰다.

아리랑 축전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의 탄생 90주년을 기념, 오는 4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전이다.

KNCC 통일위원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뤄나가는 데는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아리랑 축전의 참관이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통일위원회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해 남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난 57년간 가보지 못했던 북한 교회를 방문해 민족의 화해.평화를 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귀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단의 보수 인사들은 ≪정치색이 짙은 행사에 종교인이 참석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계쪽 일부 언론도 ≪자칫 작년 ≪8.15 사태≫ 처럼 남남갈등을 야기, 보수세력의 역공에 휘말릴 수 있다≫는 KNCC 내부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신지홍 기자
연합뉴스

F-15, 미국은 강매하고 국방부는 맹종하고



공군은 울고 싶다. 차기 전투기(F-X) 선정 작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기종선정에 시장논리, 게임의 논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로비와 압력이라는 정치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어떤 실무 관계자는 ≪내 뜻과 상관없이 차기 전투기가 결정될 경우 한강에 투신자살하겠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기종선정을 앞두고 돌아가는 기류에 가장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집단은 공군 정비사들이다. 전투기 추락사고만 나면 몰매를 맞는 정비사들은 미국과 일본이 도태시킬 F-15가 도입되면 2040년까지 정비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다. 기종결정에서 공군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지난 정권들과 다를 게 없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군은 국방부가 최종 수요 집단인 공군의 기종결정 의지를 ≪견제≫하고 국방부가 권한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막판에 배점기준까지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국방부 획득실에 파견된 공군 출신 장교들이 국방부의 평가 배점표를 만드는 데 협조했다며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결정에서 추구해야 할 종합적인 국가 이익과 미래 항공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화한다는 국민적 합의사항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1999년 4월 당시 산업자원부는 ≪국가항공우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께 세계 10대 항공국가, 전투기를 독자생산하는 국가로서 항공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전투기 사업은 국방부-과기부-산자부를 망라한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럴듯한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전투기 사업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국방부 획득실이라는 오프라인이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종합적인 국가 이익에 대한 고려는 애초 없었다. 이것은 애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드러났다.

요구성능부터 F-15K에 맞춰

4개국(미국, 프랑스, 유럽컨소시엄, 러시아)이 참여하여 수주경쟁을 하는 F-X 사업은 태생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공군은 차기 전투기에 대한 공군의 요구성능(ROC)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제 F-15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F-15K,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대상기종 가운데 낡은 개념인 F-15 전투기의 성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 4개 기종의 전투기 성능을 평가했다. 이 ROC가 1980년대 말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군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ROC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80년대부터 사업을 주관하였던 금기현 장군은 이런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 그뒤 ROC는 업그레이드되기보다는 다운그레이드됨으로써 2000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행해진 공군의 해외 시험평가 결과 4개 기종 모두가 ≪ROC 충족≫이라는 예정된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마치 쉬운 수능문제를 출제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변별력을 없애버린 것과 같다. 유럽제 전투기가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각종 전자식 레이더 능력, 스텔스 기술, 음성인식 시스템 등의 비교우위 분야가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실종된 것이다. 2003년부터 60대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도입하려는 싱가포르의 경우 최신 전자전 개념을 적용한 ROC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F-15K의 경우 싱가포르 공군에는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감히 명함도 못 내밀 형편이 됐다. 이를 두고 공군 일각에서는 어째서 우리 공군 수준이 싱가포르의 그것보다 떨어져야 하는지 탄식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요구 성능을 기초로 전원 합격 처리하고, 유럽제 전투기의 최신개념과 하이테크 분야는 ≪선택 옵션≫으로 분리해버린 데서 차기 전투기가 미국제로 가려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공군은 ROC 이외의 ≪선택 옵션≫을 기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군과 공급업체 사이의 1년 반 동안 힘겨운 줄다리기는 이 선택 옵션에 대한 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말 각 평가기관에 하달한 새로운 지침에서 이 선택옵션에 의해 기종간의 평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옵션을 충족시키지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록 조처했다. 그 결과 아무리 낡은 전투기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 ≪반집 승부≫의 경쟁이 되고 말았다. 시험평가에서 라팔과 유로파이터에 뒤져 3등을 한 F-15K를 배려한 ≪꼴찌 구하기≫인 셈이다.

억지로 만든 ≪반집 승부≫

국방부는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배점기준표는 이미 지난해에 하달된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11월 전투기 사업 공청회에서 선택옵션의 결정력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



군의 정서와는 매우 다르다. 어차피 지금의 ROC를 갖고는 선택옵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지언정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의 전투기 기종결정 방식은 2단계다. 1단계는 전투기의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능력(34.55%) △군 운용적합성(18.13%) △기술이전/계약조건(11.99%)에 대한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1단계에서 최고 기종과 그 다음 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에 미달하는 경우 기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단계 평가로 넘어간다. 2단계는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한-미연합작전과 군사적 협력문제) △국제관계에 끼치는 영향(한반도 평화유지) △해외시장개척에 끼치는 영향(수출/수입의 균형) 문제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2단계 평가에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계를 고려한 판단을 하겠다는 점에서 F-15K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단계 평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를 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말한 국방부의 배점 지침은 바로 2단계 평가에서 기종간 우열의 차이를 3% 이내로 조정하는 장치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자.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에서 이창호와 마샤오춘이 반집 승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주최쪽이 나서서 바둑 승부가 3집 차이 이상 나지 않으면 주최쪽이 우승자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2000년 9월 국방부는 국방 조달본부에 하달한 해외업체 협상지침에서 해외 공급업체와의 절충교역(Off-set) 협상에서 무기도입 가격의 30%에 해당되는 절충교역 협상을 하도록 기준을 내놓았다. 이 절충교역 30%는 과거 F-16 도입시 미국업체에 적용한 기준이다. 최초 1988년 국방부 훈령에는 절충교역 하한선이 50%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88올림픽을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 관리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당시 상공부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미 무기거래시 절충교역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미국쪽에 유리하도록 절충교역 하한선을 30%로 하향조정하는 훈령을 새로 만든다. 이 조처 덕분에 미국의 제너럴다이내믹스사와 맥도널더글러스사는 상호 담합하여 절충교역 30%의 조건으로 한국에 전투기를 넘겨주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두 업체가 한국에 과도한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 절충교역 30%는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수준을 드러내는 불평등한 기준이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이 비율에 맞춰 사업을 관리해왔다. 12년 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정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럽제 전투기 공급회사들의 파격적인 기술이전 조건 제시에 따라 2001년 4월 국방부는 30%의 ≪성역≫을 깨고 70% 이상 절충교역을 한다는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을 하달한다. 애초부터 미국제 전투기를 전제로 한 사업관리 방식이 국방부 의지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 무너져버린 것이다.

안사면 한반도 흔들어댈 것

그간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약 2년여에 걸쳐 미국의 파상적인 압력을 버티어낸 것은 높이 평가해줄 만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전투기 판매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 전투기 사업을 한-미 동맹관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예상 외로 심각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제 전투기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군사정보와 전략기획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자국의 입맛에 맞게 군사전략을 흔들어댈 가능성이다. 지금 한국군의 첨단 무기도입은 1994년 ≪서울 불바다≫ 전쟁위기에서 한국을 방문한 당시 페리 미 국방장관의 압력이 있고 나서 대부분 국방부 중기국방계획에 반영된 것들이다. 이 당시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괄목할 만하게 변경시켰으며 그 결과 한국 합참의 군사전략 기조도 크게 흔들렸다. 그뒤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롱보우 헬기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이어 199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선언 제7항에서는 ≪향후 연합방위력 증강에 있어 한-미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최우선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 논리에 의해 한국군 무기도입을 미국의 5개 군수재벌이 독과점하는 무기시장 구조가 더더욱 고착되었다.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F-15를 구매 권유했던 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SCM 등 한-미간 모든 안보라인, 모든 대화테이블이 F-15를 위한 세일즈 자리로 변질되어왔다. 미국쪽의 태도는 한-미 군사공조가 △정보의 공조 △정책의 공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라는 3대 축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자율적인 기종결정의 여지를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현재 국방부의 최고 지휘부가 손꼽히는 ≪미국통들≫이며, 한-미 군사공조의 재정비 강화를 외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의 문법≫이다. 이 압력을 견디고 한국의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차기 전투기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엽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대 군사평론가
한겨레 21

젊은 세대의 반미독립운동

부시 ≪악의 축≫ 발언과 ≪김동성 금박탈≫, 제이 레노 망언등으로 반미감정 확산
태극기달기와 미국제품 불매운동등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져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반미열풍이 83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진정한 독립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삼일절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고, 정부기념식에서 ≪선구자≫ 대신 독재정권하에서 금지곡이었던 ≪상록수≫가 울려퍼졌다. 달라진 현실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의미있는 변화다. 온라인에서는 태극기 주문이 밀리고 아바타에 달 태극기 이미지가 30만 회나 다운로드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삼일절 하루만이라도 미국상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온라인에서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돼 미국 제품 리스트가 공개되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으로 요약되는 대북 적대적 발언과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김동성선수의 ≪금박탈 사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불붙은 반미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이 이쯤되면 단순히 반미감정으로 고취된 애국심의 감정적 촉발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상품 불매운동 합시다≫라는 글은 ≪미국제품 불매운동, 그것은 상처 받은 한국민의 자존심이다≫라며 전제한 뒤, ≪지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김동성 선수 일로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맥도날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며 ≪공중파 방송에서 반미감정이 불매운동으로 번져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맥도널드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라는 뉴스가 보도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민들의 반응이 미국에도 전달된 것인지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서는 27일자 뉴스로 한국에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반미감정이 휩쓸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인들은 미국을 ≪테러의 축≫ ≪미국은 추악한 스포츠맨협회≫라고 부르고 오노, 김운용, 부시 순으로 미워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가장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노스럽다≫, ≪오노 같은 놈≫ 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운동이 미국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향유해온 2,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먹고 마시며, mTV와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마이클 조단의 NBA에 환호하던 세대들이 미국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를 생활처럼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솟는 반미감정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분단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반미운동이 일시적 신드롬이나 거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석유와 군수산업에 기대고 있는 부시정권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반미감정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0년대의 반미운동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오히려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열풍은 그 지속성과 크기에 따라 정치 ·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한달동안 부시정권의 입을 이용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뿌려왔던 일부 야당과 극우언론은 반미열풍에 큰 타격을 받았다.≫김동성 금박탈사건≫을 양비론으로 몰았던 조선일보는 만평을 두번이나 바꾸는 촌극을 벌였고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큰 곤경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부시와 오노가 촉매가 되어 ≪반미≫가 특정 운동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확산된 2002년 삼일절. 많은 국민들은 기미년 3월 1일 정오에 일본인을 떨게 했던 그 함성이 미국에게도 큰 경고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문선영 기자
2002/03/01 시민의 신문



부질없는 시비질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3일 ~ 25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북은 민족대화합의 장을 마련할 일념밑에 아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를 보러 평양에 갈걸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판도에서 아리랑열풍, 평양행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같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동족이 준비하는 축제를 어떻게하나 비하하기 위해서 악을 쓰며 헐뜯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야언론인 김강호씨의 글 부질없는 시비질 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이북에서 머지않아 대성황리에 진행될 아리랑 대축제를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리랑이 우리 겨레의 공통된 민족적 정서이고 그 아리랑축제를 통해 민족의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있게 될 평양 아리랑 축제는 민족의 대경사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온 겨레의 기쁨과 흥분, 경축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너스레들이 이 땅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온 겨레의 분격을 촉발시키고 있다.

못된 버러지 땅바닥에서 모로 긴다고 매문지 조선일보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조선일보는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공연을 관광상품개발이니 그 무슨 정치예술이니 하는 따위의 악에 바친 표현을 써가면서 시비질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간과할수 없는 도전행위가 아닐수 없다.

아리랑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민족사와 함께 불리어온 민족정서가 넘치는 민족 고유의 노래이다. 우리 민족은 괴로울때도 기쁠때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아리랑의 곡조속에 민족의 고유한 넋을 가슴깊이 간직했다. 때문에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로 우리 민족의 정서로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북이 이러한 아리랑을 주제로한 대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고유한 넋을 꽃피워 민족적 대단합을 이루려는 시종일관한 애국애족의 이념의 표출로써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환영해야할 일인 것이다. 하기에 지금 해내외의 동포들은 환희의 기쁨속에 아리랑 축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 민족뿐이 아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까지도 아리랑 축제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악하게도 유독 조선일보만이 아리랑 공연을 시비질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조선일보가 아리랑 을 비방해나선 것은 바로 내외에서 급격히 그 열기가 높아가고 있는 이북의 아리랑 공연을 헐뜯음으로해서 이남 민중들이 평양축제에 가는 것을 막아보려는데 흉심이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민족의 대단합을 가로막고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외세와 이 땅의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동족헐뜯기에 이골이나 갖은 모략선전과 거짓선전의 어용나팔수가 되어온 조선일보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거짓말신문, 볼맛도 없는 신문, 극악한 반공매문지, 모략궤변지로 낙인찍고 침뱉고 돌아선지 오래다.

조선일보의 악의에 찬 아리랑 공연 비방은 공연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북 청년학생들과 연예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공연의 인기를 훼손시키고 왜곡부정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하기에 지금 이 땅의 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 애국단체들과 민중들은 분격을 금치 못해 조선일보의 악담을 준열히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했다. 매문지 조선일보가 아무리 아리랑 공연을 비방한다해도 민족적 대화합의 역사적 장이 펼쳐질 평양 아리랑 축제로 향한 이남 민중들의 앞길은 결코 막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대세와 민의를 똑바로 보고 자기의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부질없는 모략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동족비방으로 남북대결만을 몰아오려는 조선일보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설 것이다.

구전소설에 나오는 놀부는 혈육간의 의리도 없이 시비질과 욕심을 부리다가 끝내 천벌을 받고 망하게 되는데요.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를 기를 쓰고 깎아내리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신통히도 구전소설에 나오는 놀부의 심보와 같다고 하겠죠. 이런 세력들의 운명 또한 놀부의 운명과 달리 될수 없을 겁니다.

반통일세력들이 제아무리 책동을 해도 아리랑 축제로 쏠리는 민심을 막을수는 없을 겁니다. 겨레의 마음은 벌써 아리랑 축제장에, 평양에 가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자의 언론탄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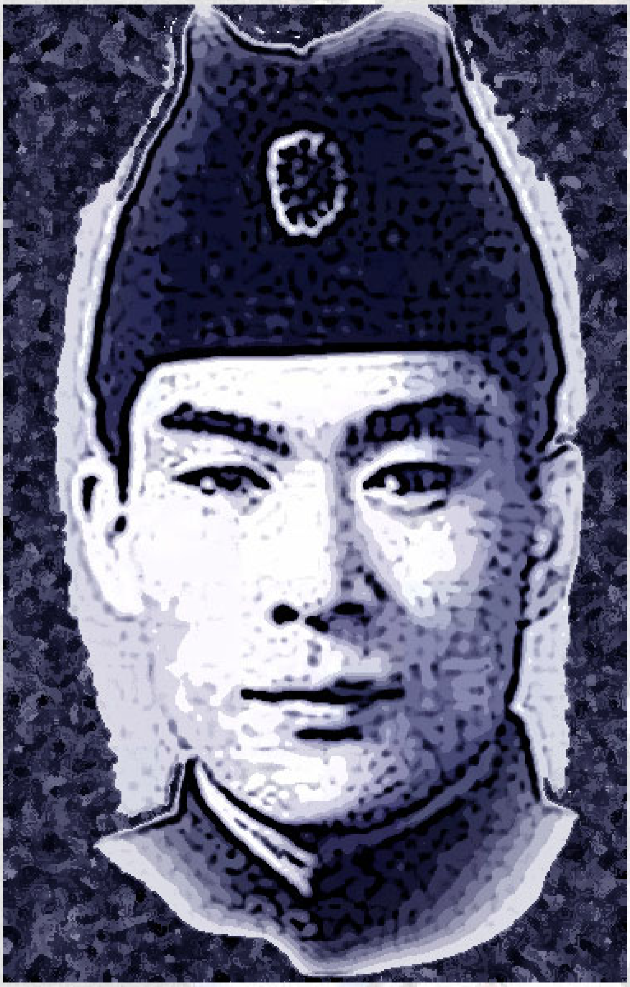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6일 ~ 28일

파쇼독재정권의 돌격대가 되어 진보적인 언론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됐던 이회창인데요. 그러한 이회창의 입에서 감히 언론탄압이요 뭐요 하는 말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조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인 김진수씨의 글을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언론탄압자의 언론탄압설 .

파쇼와 독재를 자기의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예외없이 정의를 주장하는 민주적인 언론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광분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아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중국에서 진나라시기때만해도 그랬다. 당시 진시황은 학자들의 정치적 이탈을 막기 위해 진보서적들 가운데 의학, 농업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것도 부족해 다음해에는 수천수만의 학식있는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놓고 무참하게 학살했다. 분서갱유라는 말은 이 치떨리는 민중학살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사상초유의 언론탄압말살사건이다.



언론탄압의 역사는 한국근대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1961년에 있은 진보서적에 대한 대량압수와 함께 조작한 민족일보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내용과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에서는 분서갱유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집단은 이 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고리의 하나로 이른바 민족일보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협상과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길을 지향했던 민족일보는 창간된지 3개월만에 폐간됐고 수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박정희 군사독재집단의 이 언론탄압행위에 적극 추종하면서 그 하수인 역을 한 자가 바로 현재 한나라당 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이다.

그는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그가 조작한 혁명재판부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민족일보사건을 직접 다루었다. 그는 진보적 언론인들에게 당치않은 죄명을 들씌워 중형을 선고했고 조용수사장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이 사형판결은 항소심 선고공판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그해에 집행되었다. 한국사상 최대규모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장본인은 이회창이였다.

이처럼 일찌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군사독재집단의 파수군이 되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언론을 말살하고 진보적 언론인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면서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이회창이 아직도 정계에서 돌아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그런데 더욱 분격을 금할수 없는 것은 이런 언론탄압자가 지금에 와서 무슨 언론탄압설을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니 언론길들이기니 민주주의 위기가 극에 달한 것이니 뭐니 하며 온갖 험담을 다했다.

족벌언론, 파쇼언론의 부정비리와 부정협잡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언론개혁활동을 홍위병, 관변단체로 매도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했다.

악어와 악어새와의 연결고리처럼 민족반역자와 국민을 등진 썩은 언론과의 추악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회창은 언론사세무조사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북과 연결시키며 무슨 사전정비작업이니 비판언론죽이기니 뭐니하고 떠들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언론의 민주개혁을 막아 특정언론과 매문가들을 자기의 음흉한 정치적 목적수행에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잘알수 있다.

실제로 이회창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반민족반통일매문가들을 이용해 자기의 더러운 대권욕을 채우려는데 써먹고 있다. 그러니 이회창의 언론탄압설은 정권탈취를 위한 광대극이다.

진보적인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이런 자가 대통령감투를 쓰면 이 땅에는 지난 군사독재시기보다 더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은 서슬퍼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고 말 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언론탄압의 괴수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광란의 파시스트들



6.15남북공동선언이후에도 온갖 반북대결 반통일적 언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후원의 밤이 있었던 지난 2월 27일, 이른바 ≪보수출정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후원의 밤에 참여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인사 800여명은 마치 승부겨루기를 하듯, 반통일적이고 반북대결적인 언사들을 남발하며 보수세력의 집결로 대선승리를 다짐했다고 한다.

김용갑 한나라당의원은 ≪좌파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회의 주도권을 우리 보수세력이 다시 되찾아야 한다≫, ≪안보의 축은 보수다≫라는 인사말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또한 ≪김용갑의원의 용기에 감복하며 한나라당은 따뜻한 보수이다≫, ≪이땅의 뿌리는 보수다. 보수가 서야 나라가 선다≫는 후원의 밤 모토에 공감을 표하며, 보수세력의 집결로 대선승리를 다짐하였다.

특히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박명환 한나라당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못생긴 주제에 대권을 인수하였으며 꾀가 쥐대가리다≫,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추진과 통일인사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평양축전에 국가보안법 수배자를 보내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한 300명 가 있다. 이번에도 정신병환자가 많이 가 있을 것이다≫라며 왜곡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도 ≪이북은 악의 축, 김대중은 악의 씨≫ ≪한반도 평화유지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반미운동세력이 급부상했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보수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통일연대는 이러한 이들의 거의 광란에 가까운 소동을 보면서 이들을 보수로 쳐주는 것 조차도 심각하게 재고해야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보수주의≫란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수주의에 대한 사전적 해석에 입각하여 볼 때 이들의 소동을 보수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 아니겠는가! 통일연대는 보수를 반대하지만 보수주의도 하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과 더불어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의사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보수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하나같이 그 무슨 명분도 근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6.15공동선언의 시대적 흐름을 뒤바꾸어 놓으려는 미국에 앞장서서 충성을 맹세하는 광란적인 의식을 연상케 한다. 북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 부시의 말에 대한 세계적인 공분이 채 가라 안기도 전에 이 말보다 더 극악한 말로 부시에 아부하려는 이들의 작태를 보면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한 동족임이 부끄럽고 나아가 이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를 운운하는 현실이 망신스럽다.

이들의 이러한 광란극은 역설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폭의 패러디를 연상케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열리고 한반도의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의 대세를 읽을 능력이 없는 부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또다시 전쟁과 민족대결의 흐름으로 끌어드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남한 내에 반미의식만 압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망신살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번 보수출정식을 빙자한 광란출정식이 자행되었다.

통일연대는 이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안일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그들은 분명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며 그 어떤 국민적인 공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의 집권을 위하여 그 어떤 미친 짓이라도 능히 할수 있는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떨쳐나서서 6.15공동선언이행의 국민적 공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결의하여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만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극우 반통일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민족의 평화마저도 보존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뚜렷이 하여야 한다.

통일연대는 이 광란출정식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다시한번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소행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박명환, 안택수, 조웅규, 하순봉, 박승국, 김용균, 나오연, 안상수, 박원홍, 서청원, 김진재, 김종하, 목요상, 김기배, 박주천, 박흥기, 이윤창, 홍사덕, 박희태, 최돈웅, 김무성, 이주영, 홍준표, 현승일, 박창달, 현경대, 박혁규, 이상배, 안경률, 정병국, 김부겸, 박세환, 박관용, 신경식, 김영일, 양정규, 이상득, 김동욱, 손희정, 이승철, 전재희, 남경필, 김낙기, 최연희, 김정숙, 이상희, 심규철, 임진출, 이재오, 김문수 등 총 51명.

≪자민련≫ 안대륜, 조희욱, 김학원

2002년 3월 6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한총련 합법화 투쟁 더욱 힘있게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7일~3월 1일



사회자 : 지금 이 땅에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년학생들이 각계 민중의 지지와 성원속에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면 어떻게 해야하겠는지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볼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땅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윤정원 : 지난 1월 31일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가협 동호회, 4월혁명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간담회를 시작하며 권오헌 민가협공동의장이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의 중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강위원 전 한총련의장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을 보고를 하며 작년 9월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위원 전 의장은 한총련이적규정철회를 위해서 사회각계 단체를 망라하는 사회대책위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 지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사회대책기구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죠.

윤정원 : 간담회를 제안했던 권오현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대책기구마련을 위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사회대책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로부터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준비모임을 만들 것을 결정을 했어요. 이후 간담회는 준비모임의 대표로 권오현민가협공동대표를 집행책임자로,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앞으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자 :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그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같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 청년학생들은 물론 각계 민중의 지향으로 보나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백만 학도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직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학생대중조직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은 해마다 진행하는 대학총학생회장선거와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어요. 청년학생들은 해마다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대학총학생회장과 한총련대의원과 의장을 선출을 하고 한총련이 벌이는 활동을 벌이면서 한총련은 전대협의 뒤를 이어 각계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반미투쟁의 봉화를 치켜들고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이 땅에 반미열풍을 안아온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것도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대학가의 통일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그 이행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온 민족은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바로 이런 투쟁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청년학생들이기에 각계 민중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발을 맞춰서 이 투쟁을 더 강도높에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청년학생들이죠. 무엇보다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거예요. 당면해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 을 강도높게 진행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목소리가 각계 민중들속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투쟁과 같은 궤도선상에서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하겠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한총련이 각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으로 97년 5기 출범식이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서 해마다 산출되는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구속, 수배돼서 감옥과 또 외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잖아요.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각계 민중과 연대를 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 고조시켜나감으로써 당국의 부당한 한총련의 이적단체규정을 철회시키고 합법화를 실현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총련이 겨레의 희망으로 우뚝서게 해야 할겁니다.

한총련세대 홈페이지 개통

안녕하십니까?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준비 모임입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올 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한총련 내부에서는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한총련 외곽에서는 이적규정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가 모두 연대해 범사회인 대책위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총련 대학생들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 이후, 1300여명이 구속됐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903명이나 구속됐습니다. 한총련은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해 출범 10년을 맞는 한총련은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주체적이고 ≪공격적인 혁신≫을 통해 2000년대의 시대정신이라 할 6 · 15선언을 가장 대중적으로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한총련식 투쟁과 헌신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든,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회 맨 앞에서 깃발이 되어 노력해온 한총련의 활동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연한 의지로 한총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사상의 차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 소속단체와 지역, 세대, 직업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국제적 망신이자 우리시대 대표적 인권유린이 되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을 모든 양심세력이 연대해 올 해 안에 반드시 풀어갔으면 합니다.

한총련이 ≪한총련이야기≫라는 대책위 단행본에 밝히고 있는 ≪희망의 약속≫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고 책임있게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시대의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본만능의 경쟁사회에서 한총련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폐허가 된 대학주변의 환락가를 연상하면 한총련이야말로 우리시대의 보배라는 생각뿐입니다. 설령 젊은이들의 활동에 100퍼센트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청년이 가져야 할 진취성으로 이해하고 더욱 격려하고 아껴줘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적규정이 벗겨진 한총련의 활동은 분명 국민과 학생들에게 감동을 자아낼 것입니다.

한총련 스스로도 이적규정에는 타협 없이 싸우되, 이적규정을 이유로 통일시대를 맞는 청년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우리는 한총련이 가진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에 경의를 표하며, 21세기 한국학생운동이 개척해낼 역사의 위대한 전진을 진지하게 지켜 볼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위에서 보듯이, 취지에 알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는 광범한 구성과 책임 있는 집행으로 대책위 결성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대책위의 정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든든한 모범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진보와 개혁을 사랑하고 학생운동의 성장을 기대하는 모든 양심들과 함께 뜻을 모아 시민사회운동의 예비인재들이라 할 한총련 학생들이 처한 고난을 시급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1.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결성

- 3월14일 오후 4시 향린교회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물론 전대협 동우회 등 5 · 18세대,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단체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책기구 건설을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 3월20일 오전10시 서울 기독교 회관.
  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한총련 이야기≫출간 기념회, 한총련 문제의 유엔 인권위 제소 선언식 등을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2.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총련 이야기≫3월 7일 발간.

-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문해 주세요.

3. 대책위 홈페이지 개통

- 대책위 활동, 대책위 가입, 책자 주문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총련 세대 h-gen≫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h-gen.net 클릭!
  방명록과 의견개진란에 좋은 의견을 많이 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 사무실 전화 : 02)362-1987 팩스 : 02)364-7217 손전화 : 017-326-6462

아직 임시 홈페이지라 조금은 미흡하지만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노동자의 요구 관철돼야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7일~3월 1일



지금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노동자의 요구는 관철돼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민주노총은 악덕업주들이 그 무슨 노사평화협정과 같은 노동자회유기만술책에 매어달리기 보다는 주요 노동현안문제부터 사전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4대 노동현안문제의 하나로 장기파업중인 노조들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몇달째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들의 경우를 보면 모두 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련한 첨예한 문제들을 요구조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노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의 보장, 그것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이를 위해 그토록 굴함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덕업주들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대신 노동자들을 기만우롱하는 한편 그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중생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들먹이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책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기업의 민영화책동은 처음부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에 따라 그들의 강요로 진행되게 된겁니다. 이 땅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은 강압과 투자로 주요기간기업을 짧은 시간에 손쉽게 장악하게 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여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 생활터전에서 밀려나 한데에 나앉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계수단을 잃은 노동자가 갈길이란 명백합니다. 다행히 해고를 면한 사람들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가중되는 노동불황으로해서 현재의 검은 그림자를 늘 달고 살아야할지 모릅니다.

국민생활도 심히 위협당하게 될겁니다.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될 것이고 각종 사회악과 범죄들이 범람하게 될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초, 기간산업, 기업들을 거머쥔 외국독점자본의 이윤추구로 각종 사회비용들이 단번에 몇배로 뛰어오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여러가지 경제파동으로 기초적인 국민생활은 엉망이 되고 그만큼 국민생활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이 이 땅의 공기업에 대한 해외매각과 민영화에 관해 들먹일때부터 이를 결사반대해 대규모적인 집회와 시위들을 연일 벌여왔습니다.

특히 전국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 등 공공기관산업노조들은 노동자생존권과 국민생활 및 산업의 기초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매각과 민영화강요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이 시각도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서 민중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투쟁결의는 의롭고 정당한 겁니다. 때문에 이들의 투쟁을 전국민이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으며 투쟁대열에 함께 동참할 것을 열렬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벼랑턱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분기해나선 노동자대중과 우리 민중의 투쟁의지는 확고한 것입니다. 1300만 우리 노동형제들은 결사의 의지를 안고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내고야 말겁니다.



운동의 대중화를 생각해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3월 4일～5일

새해를 맞이한 지금 학생운동에 거는 민중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건 올해 사회의 민주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이행, 반외세자주화투쟁에서 선봉장은 다름아닌 청년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기대에 부응해서 올해에 학생운동이 대중운동의 선봉대로 더 우뚝 서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운동의 대중화는 학생운동발전을 위해 나서는 필연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운동은 어느 한두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백만학도가 함께 하는 대중운동이다.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운동을 대중화해야한다. 대중화를 떠난 운동의 승리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학생운동발전을 위한 자기성찰의 견지에서 현시기 학생운동을 투시해 보면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학생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선 학생운동핵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의 당위성과 목적과 의의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관점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이지 못한데 있다. 일부 학생들속에서 아직도 운동에 무관심한 처사를 보이고 있는 것 등은 바로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 준비정도에 걸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현시기 학생들의 생활상요구와 ****, 조선일보운동전개, ****확보, 재단비리척결과 같은 것은 도외시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밖에도 학생대중의 사상정신적 준비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구호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투쟁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이같은 문제들에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의식화는 대중운동의 선행작업이다. 더욱이 정세가 격변하고 대중운동이 발전할수록 그에 걸맞게 의식화작업을 보다 심화시켜야 운동의 발전과 승리를 가져올수 있다.

한총련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의 옥중시들을 묶어 발간한 책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킨 것이라든가 또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이행을 가로막는 이회창을 매장시키기 위해 이회창바로보기운동,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의식화작업은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감정, 정서에 걸맞게 다양하게 진행해야한다. 운동핵심들은 학생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 그리고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주화와 반미자주화투쟁의 당위성 등을 대자보게시, 동아리활동, 연예대활동, 인터넷과 피시방을 통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구호를 잘 드는 것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구호는 투쟁의 목적과 과제, 향방을 명시해주는 생동의 기치이며 대중을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위력한 기치이다. 그런데 운동핵심들은 현실의 절박한 활동인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여기에 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이해관계와 생활상 요구가 반영된 구호를 적절히 배합시켜 들고 나가야한다.

대학등록금인상자율화반대,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반대, 국가보안법철폐, 용산기지아파트설립계획 백지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반대와 주한미군철수, 이회창반대, 주적론철회 등이 그 예로 될수 있다.

올바른 투쟁형식과 방법을 ****하는 것 역시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 할수 있다.

운동핵심들은 서명운동, 청원서보내기, 보수언론구독거부 등 낮은 형태의 투쟁과 동맹휴업, 집회, 시위 등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을 적절히 배합해 조직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학생대중과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고 그들이 공감할수 있는 투쟁형식과 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명실공히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해나서는 대중운동으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자기의 전국조직이 있고 투쟁목표가 명백한 이상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지 못할 아무런 걱정도 없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시대와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평양의 아침

비전향장기수 이도근

새아침 밝았네 혁명의 수도
발걸음 활기 넘친 영웅의 거리
꿈에도 그리던 그품에 안기어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보네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흙마대 돌마대 매고 달리며
고난을 뚫고 헤친 힘찬 발걸음
피바다 불바다 천만리 넘어
백전백승 떨쳐온 조선의 기상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선군의 붉은 기폭 노을로 불타
통일된 강성대국 아침 펼치네
백발은 날려도 젊음을 안고
수령위한 이 한생 더욱 꽃피리

장군님 부름에 떨쳐나섰네
아 -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주체91 2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23일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조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단병호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총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을 시장화해 희생물로 만들려는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은 23일 한반도긴장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이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호전광 부쉬의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패거리들의 이같은 수작은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땅에 수만명의 침략군과 방대한 핵무기까지 배비해놓고 북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이 미국의 가공할 위협에 대처해 대응수단을 갖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을 산생시키는 주범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진범인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일 많이 생산, 수출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매일매시각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패거리들이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니 뭐니하는 것은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다. 이건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덮씌우기 위해 혈안인 부쉬집단의 호전적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는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매국반역행위에 환장한 이회창패거리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부쉬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거들고 있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고 저들의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것인데 이회창패거리들이 ***면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민족반역의 무리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회창 한나라당을 지체없이 폭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쉬행정부는 지난 18일에 있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테러사범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4일 리비아 쑨불라국제천선구락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2월 26일

부산 모 병원 전공의 이진수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의 인간사랑의 정치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22일 저녁 함께 퇴근하는 동료에게 비인간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의사의 양심을 지켜나갈수 없다고 괴로운 심정을 터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방송으로 이북 강원도 **군에서 네명의 절망적인 화상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실을 들었다. 말그대로 인간사랑의 전설이다. 얼마든지 살수 있는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는 우리 의사들에게 이 꿈같은 얘기는 참으로 타격이 아닐수 없다.
이씨는 계속해 무한대의 민중사랑, 인간을 지니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이북 민중들만이 이런 미담을 창조할수 있다면서 인간사랑의 참정치로 기적적인 소생의 전설을 끊임없이 꽃피워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토로했습니다.

철도와 발전, 가스 등 3개 공기업노조가 25일 새벽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원 8천여명은 25일 밤 건국대와 서울대에서 각각 이틀째 밤샘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한동국무총리는 25일 철도와 발전, 가스 등 3개 공공부분파업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파업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연대와 민주노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쉬행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애향동지회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양평읍 시가지에 있는 육군 종합훈련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인노동조합연맹은 22일 경찰의 기자폭행을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은 23일 한반도긴장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이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주도한 한총련대의원 박모씨 등 6명을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민 200여명은 23일 오후 성남 시청앞 광장에서 미군기지 성남 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부쉬반대투쟁을 벌인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을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탄압하도록 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총리와 말레이지아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태국과 말레이지아를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영화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체91 2월 27일

서울에 있는 중고작가들의 모임인 자주문예학교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맞아 제작한 팜플렛 만경대 위대한 가문 이 시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서문과 2개의 체계로 되어 있는 팜플렛에는 시 자주의 새세상을 연 위대한 가문 이라는 제목하에 남산의 푸른 소나무 , 묘향산

가을아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 김형직 선생과 **김일성**주석,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명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팜플렛은 시 민족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혁명가문 이라는 제목하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한생을 바친 김형직선생과 조국의 광복과 6.25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시고 이북땅위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으켜 세우신 **김일성**주석 그리고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통일된 강성대국의 미래에로 겨레를 향도해 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불멸의 공적이 그분들께서 몸소 창작한 창작시 그대로 상세히 서술돼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경건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철도와 발전산업의 수습대책, 노동조건보장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미상공회의소농성투쟁참가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표단이 23일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총련은 부쉬방한결과에 대한 입장을 규명해 24일 성명을 냈습니다.

한총련은 경찰이 부쉬행각을 반대해 나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4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극단적 반미주의니 뭐니 하며 각계의 반미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노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는 극단적 반미주의니 뭐니하는 일부 언론의 작태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폭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정의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본연의 의무이고 또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추세인 반미투쟁을 극단주의니 뭐니하고 모독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 그들은 반미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분열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우리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잘알고 있기에 지금 각계 민중은 반미투쟁에 흔연히 나서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정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우리 민중의 이같은 애국충정을 모독하고 그에 칼질을 하고 있으니 범죄행위이면 이보다 더한 범죄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언론은 각성해야한다. 만일 일부 언론이 각계의 거세찬 반미항전에 동참하지 않고 그에 계속 반기를 들고 나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야인사 오모씨는 각계의 의로운 반미투쟁을 모독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에 편승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외세에 추종해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도전해 나선다면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는 극악한 매문지로써 역사의 가녘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6일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제동을 걸려는 선별방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이북 주재 파키스탄 대사가 26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2월 28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27일 이북에 체류하고 있는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셨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용산 미군기지부근에서 미군아파트건립반대, 부쉬방한결과규탄, 용산미군기지반환촉구 제4차 시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성남 시민 200여명은 지난 2월 23일 시청앞 광장에서 미군기지성남이전결사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출범식과 함께 1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지난 2월 26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총련은 2월 25일 성명을 발표해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찬동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불법파업혐의라는 구실밑에 철도와 발전, 가스 등 3개 노조 지도부성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그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니 뭐니하는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의 이같은 악담은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가셔지지 못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 있는 것은 미국때문이다. 미국이 이 땅에 수만의 침략군과 방대한 핵무기까지 배비해놓고 북을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남북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이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에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도둑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회창이 북에 대한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을 기필코 지피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회창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 우리 민족이 더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 이회창을 당장 잡아치워야 한다.

고려대의 최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쉬패거리들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계속 거드는 목적은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저들의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희생으로 엄청난 돈벌이를 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회창은 미국의 이같은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정말 가련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자기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민족이 피해를 입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46명 대표들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

모임 참가를 가로막은 통일부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의 요지를 2월 15일 기니 라디오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를 2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요제프 게바우에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벨라루시 대통령이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해 한 연설에서 미군이 중앙아시아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주체91 3월 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28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총련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조총련 조령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현본부위원장일군대표단, 금강산가극단 이장준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접견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2월 28일 함흥대극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 을 관람하셨습니다.

인천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쉬의 방한결과와 관련해 2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달 24일 각계에서 부쉬행각을 반대해 전개한 항의운동에 대한 투쟁평가서를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인 3.1봉기가 있은지 83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3.1봉기의 기개를 되살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1봉기는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한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였다. 자주독립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불같은 염원과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3.1독립만세의 우렁찬 함성으로 터져 강산을 뒤흔들었다.
3.1봉기를 통하여 우리 민중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했다.
참으로 3.1봉기는 우리 민중의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째 흔들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다.
서울대학교 박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83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이 땅에는 그때 애국선열들이 더운 피를 뿌리며 애타게 절규하던 염원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를 대신해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또 미국을 등에 업고 재생재무장한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재침준비에 혈안이 돼 광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있은 고이즈미의 한국행각을 통해서도 이를 잘알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침략자들과의 공조를 부르짖으면서 민족반역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이 땅의 현실은 각계 민중이 3.1봉기의 정신을 이어 이 땅에서 반미반외세, 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일치단결해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흉악무도한 왼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숴야하며 외세에 명줄을 건 민족반역자들을 매장해버려야 할줄 안다.

한나라당 박근혜부총재는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이전 집단체제도입 등 당내 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당에 머무를 명분이 없어서 한나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독일동포협력회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부쉬를 규탄해 2월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2월 8일 다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 방글라데시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전국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태양절기념 적도기니위원회가 2월 12일 말라보에서 결성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91 3월 2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1일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부쉬의 방한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을 결산하는 좌담회가 지난달 2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소속 50개 노동조합의 간부와 학생 등 400여명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발전소매각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은 부쉬방한반대투쟁에 전국 80여개의 대학, 고등학교 학생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노조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제히 반박성명을 내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2월 25일 성명을 발표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벌인 대학생과 노동자 1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 검찰당국의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과 미국이 2개의 합동군사연습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70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경축공연 2월의 예술의 밤 이 2월 27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됐습니다.